

성폭력대책위·상담원 구성 피해서 실질적 대책 기대

성폭력 대책위원회와 고충상담원의 임원진이 지난달 22일 임명되었다. 이번에 선임된 임원진은 △위원장=김용기(수학교육·학생처장) △당연직 위원=김영순(화학·여학생실장), 고진호(교육학·학생상담센터소장) △임기직 교수위원=유지나(영화영상학), 김일중(무역학) △임기직 직원위원=이창학(학생복지실), 김중애(학사지원실) △임기직 학생위원=김홍민(지교4) 총학생회장, 이지숙(회계4) 총여학생회장 △고충상담원=김은혜(여학생실), 이영희(학생상담센터)로 구성되었다.

야구부, 전국대회 출전 8일 한국전력과 첫 경기

야구부(감독=한대화)가 오는 8일부터 전국 야구 선수권 대회에 출전, 동대문운동장에서 8일 한국전력과 첫 경기를 치른다. 또한 축구부(감독=김승기)는 오는 15일부터 2001 협벨코리아배 제2회 전국남녀축구대회에 출전하여 경희대, 인제대, 한남대 등과 같은 조에 속해 예선전을 펼칠 예정이다. 15일 인제대와 첫 경기를 갖는다.

금강산 통일대토론회 오는 24일부터 4일간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와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는 오는 24일부터 4일 동안 금강산 통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모두 110명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통일관련 세미나 △금강산 관광 △체육대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불교전도협회 도서기증 불교성전 번역판 42권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지난달 24일 일본 불교전도협회(BDK)로부터 불교성전 42권을 기증받았다. 세계적으로 불교경전과 불교학 연구에 지원하는 불교전도협회가 기증한 책은 일어와 영어를 대조한 불교성전 2권과 세계 40개 언어로 번역된 불교성전이다. 이와 관련해 중앙도서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기증으로 불교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기 한총련 2만여 학생과 함께 출범

최승환 의장 취임 운동 대중화 노력

제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최승환·부산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의 출범식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한양대에서 진행됐다. 전국 7개 총련 2만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이번 출범식에서 학생들은 첫날 국회 앞에서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를 위한 합의를 가진 후, 한양대로 이동해 서울지역 시민·학생연대 한마당과 개막제를 치렀다. 둘째 날에는 △통일을 비롯해 학부제와 과·반 학생회 등에 대한 토론회와 △안티조선과 언론개혁 △노동자, 농민 민중연대 등에 대한 강연회가 부대행사로 진행됐다. 오후 11시부터 시작된 분미당은 2만 여명이 한양대 대운동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민중연대한마당 △조국통일위원회 출범식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회 출범식 등이 진행된 후 한총련 의장 취임식이 진행됐다. 한총련 중앙기구인 조국통일위원회에는 이용현 전남대 총학생회장,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에는 연덕원 광운대 총학생회장이 각각 취임했다. 최승환 의장은 "6.15 공동선언 이행은 한총련이 혁신해야 하는 목표이고, 운동대중화와 통일단결은 한총련 혁신을 위한 과제"라며 "투쟁만이 아닌 생활·학문 분야를 강화한 대중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주통일을 가로막는 미국에 반대하는 운동을 범국민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범식 기간 중 열린 한총련 학부포럼 회의(의장=정연오) 총회에서 부모들은 △한총련 이적규정 철폐와 △국가보안법 철폐



사진/영태윤 기자

지난 2일 진행된 한총련 출범식 개막식에 참석한 본교 학생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등을 주장했다. 또한 '과 교류한 마당'이 열려 각 대학의 같은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끼리 전공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출범식 이후 한총련은 남북공동선언 1주년인 오는 15일부터 통일대축전이 열리는 8월 15일까지를 '민족통일 추진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반미운동을 벌여나

갈 예정이다. 특히 오는 23일에는 미국 양민학살의 진상을 규명하는 '6.23 코리아 국제전범재판'이 열린다. 대학부 flower@dongguk.edu

총동창회장 재임

“학교발전·재학생 위해 거듭나야”

연임 결정시 일부 소란 ... 총학·졸준위 성명서 발표

권노갑 총동창회장의 재임이 결정된 제 63차 총동창회 정기 이사회에서 있었던 사태에 대해 학내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모든 언론의 출입이 통제된 채 비공개로 진행된 지난달 29일 정기 이사회에서 권노갑 총동창회장의 재임안건을 놓고 임원들간에 교섭이 오가는 등 일부 소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사회에 대해 재임을 반대하는 측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기도 전에 발언권이 무시당하는 등 이른 바 날치기로 재임이 결정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동창회 사무국에서는 "모든 임원에게 발언권이 주어지는 등 회의 진행상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말하는 등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총동창회장 선출 안

건을 놓고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 총동창회를 비롯해 주요 일간지, 본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학내의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글들을 집중적으로 게시하는 등 동창회 내부의 문제를 밖으로 여론화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같은 일에 대해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와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문영수·토목4)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며,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총동창회에 촉구했다. 문영수 위원장은 "국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일이 이사회에서 그대로 재현됐다"며 "졸업생들을 위해 이해야 할 동창회가 몇몇 동문의 명예와 출세를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총동창회가 과연 모교발전을 위해 한일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라며 "총동창회에게 취임안에 사달리고 있는 졸업생들은 이미 관심 밖의 일이다"라며 안타까워했다. 졸준위는 총동창회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주장하는 한편 앞으로 재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동창회비 납부 거부운동을 벌이는 등 '예비동문'으로서의 권리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총동창회장의 재임은 이번 달에 있을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인준될 예정이다. 총동창회는 이번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총동창회관 건립 등의 동창회 현안은 물론 장학기금 확충 등의 학교발전에 대한 대안 마련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진 기자 atom@dongguk.edu

K2원정대 지난 1일 출국

오는 7월 10일경 정상 정복 계획

박영석(동국산악회, 체고 91cm) 동문이 이끄는 K2 원정대 '동국 Park's Grandslam K2 Expedition'이 지난달 28일 본관 증강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지난 1일 출국했다. 발대식에는 오복원 이사장, 송석구(철학) 총장과 럭키생명 구자준 사장 등 400여명의 학생들과 산악동호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졌다. 또한 이날 LG화재, 삼성카드, The North Face 등의 후원업체에서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 4월말 로체(8,516m)봉 정상으로 히말라야 14좌 완동에 K2(8,611m)만을 남겨두고 있는 원정대는 박영석 동문을 비롯하여 본교 재학생 등 총 11명의 대원으로 구성되었다. 원정대는 약 70일 동안 K2(8,611m)에 도전할 예정이며, 오는 7월 10일경 정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신청 사회·산업계 반영한 교육과정 평가

본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오는 20일까지 2001년 대학 재정 지원평가 중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부문에 신청할 예정이다. 교육개혁 추진 우수대학 평가는 공통분야와 선택분야로 나뉘며, 실질적인 평가가 이뤄지는 선택분야는 올해부터 학생선발 분야를 제외한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 분야 △대학별 자체 교육개혁 실천분야로 축소된다. 이는 대부분의 대학이 다양한 학생 선발전형을 마련했기 때문

인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에도 본교가 지원할 것으로 보이는 교육과정 개발 및 특성화 분야의 평가기준은 교육과정과 사회와 산업계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되어있는 것이다.

알림
이번 제1322호가 2001학년도 1학기 종강호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제1323호는 오는 8월 27일자로 발행됩니다.

지면안내

- 한총련출범식 박람회 현장 4면 (지난 1일부터 3일간 한양대에서 열린 제9기 한총련출범식, 한양대 곳곳에 전시된 '4개 주제의 문' 박람회 현장을 찾아가 보았다.)
- 해킹의 실상 5면
- 전국고교생 문학콩쿠르 6~9면
- 대안공간의 의미 11면

보리수

양심적 병역거부

최승천 (참여불교제가연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 문제가 우리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91년 이후 종교적 양심으로 인한 병역 거부자 3천736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한해 평균 400여 명의 전과자가 생겨나는 셈이다. 이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현재 1천600여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민·군 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의 일파인 '여호와와의 증인' 신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정신은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지키고 평화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기고 "원수를 사랑하라" "살인하지 말라"는 등의 성경 가르침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의 기본적 인권이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96년 양심의 자유를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규정했다. 이는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1차적인 정신적 기본권을 명백히 드러낸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전 세계의 민주국가들 대부분이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그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일반화되고 있다. 양심의 명령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을 무조건 감옥에 보내는 일은 노벨평화상을 받은 인권국가임을 자부하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불교의 제1계율은 '불살생'이다. 이는 살아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는 소극적인 뜻이 아니다. 인권, 평화, 반핵, 반전 등 보다 적극적인 해석되어야 할 이 시대의 질체절명의 가치이다. 때마침 불교의 가르침을 받드는 동국대 법대 교수들이 양심적 병역거부문제에 대해 발언하기 시작했다. 전 동국인들의 지혜가 모아져야 할 때다.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원기금 ARS 7000-119. 어떤 게 좋을까? 제 짝 찾기 / 아르바이트 / 다이어트 달나라 구경? (미지의 세계 탐험) 신세대 문화에 미쳐보기 / 냉면여행 자경중 획득 / 외국어 회화 음주 / 가무 / 봉사활동 방곡(?) · 방글라데시(?) 탐방 등 이번 방학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2학기는 제각각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좀 더 보람있고, 알찬 방학!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동대신문사

도서관 공간배치 기본안 마련

열람·자료실 집중 배치로 이용자 편의 높일 계획

오는 2002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신축 중앙도서관과 현 중앙도서관 내부공간 배치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두 도서관을 각각 '열람실 중심의 도서관', '자료실 중심의 도서관'으로 운영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안을 검토 중이다.

열람실 중심으로 배치되는 도서관은 △1층=학생편의시설 △2·3층=열람실 △4층=교수연구실로 사용될 계획이다.

또한 자료실 중심으로 배치되는 도서관의 경우 인문·사회과학 등 주제별로 자료실을 분리하고, 도서

관리를 위한 행정부서도 함께 두어 한 건물 안에서 모든 학술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기본안은 각 도서관마다 기능을 집중시켜 교수·학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조용길 중앙도서관장은 "과거 행정 편의 위주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또한 열람석과 교수연구실의 증가로 학내 공간문제 해결에도 다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용길 관장은 "현재 2천 400 여석의 열람석이 최소 3천 500석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앙도서관장을 위원장으로 사무

처장 등 각 처장과 단과대학장, 정보관리실장으로 구성된 신축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중앙도서관에서 마련한 기본안에 대해 논의·수정 중이며, 조만간 최종회의를 열어 도서관 공간배치를 확정한다.

이에 대해 총학생회(회장=김홍민·지교4)와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주환·사학 박사과정, 이하 원총)는 도서관 공간 배치에 대한 기본안이 확정되는 대로 학교측에 공청회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중앙도서관의 제 5열람실이 대학원총학생회의 건의에 따라 대학원 전용열람실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부생들은 다음 학기부터 시험기간을 제외하고는 제

5열람실의 100석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주환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3~4년 사이에 대학원 정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나 현재 대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세미나 실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번 조치에 대해 총학생회 임은희(수교4) 학원지주회투쟁위원장은 원총과 논의를 갖고 "현재 학부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열람실이 부족한 상황에서 또 100석을 줄이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총학생회와 원총은 앞으로 대학원 전용열람실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나갈 예정이다.

대학부 flower@dongguk.edu



'절규' ... 민속극 연구회 '탈'은 지난달 30일 필경도에서 대우차 노조원들의 아픔을 표현한 민속극 '노동자'를 선보였다. 지난 4월 경찰의 대우차 노조 폭력진압 당시 피범벅이 된 노동자를 한 학생이 절규하며 연기하고 있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여름학기 토익강좌 신청 오늘(4일)부터 중도에서

언어연구교육원(원장=조외연·영어영문학)과 YBM시사영어사가 공동으로 오는 25일부터 8월 16일까지 여름학기 토익강좌를 실시한다.

개설강좌는 △기초반 △토익 집중반 △고득점 대비반으로 각각 40명을 정원외로 하며,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이번 강좌 중 시행되는 모의 토익시험의 점수는 1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패스제도에 반영될 예정이다. 신청은 오늘(4일)부터 선착순으로 중앙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접수받는다.

또한 오늘부터 여름방학 특강을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여름방학 특강은 △1차=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차=다음달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한다. △영어회화

오전 9:00~10:30, 11:00~12:30 원어민 전담교원 Writing & Speaking

오전 9:00~10:30, 11:00~12:30 원어민 전담교원(1차 Marry-Anne, 2차 Darcy Shipman)

△Business English

오전 9:00~10:30, 11:00~12:30 Paul Sather(원어민 강사)

△TOEFL

오전 11:00~12:30

오전 9:00~11:00 김은옥(일본어 강사)

△WEB TOEIC 인터넷 접속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학습

2학기 장학금 지급계획 재학생 29% 수혜 예정

학생처(처장=김용기·수학교육) 학생복지실은 2001학년도 2학기 장학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2학기 교·내외 장학금은 재학생의 29%인 3천 683명에게 총 36억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30일 신청이 마감된 우수 장학금 수혜자 명단은 오는 8월 10일경 본교 홈페이지 장학정보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민·주택·하나은행에서 오는 8월부터 2학기 정부보조 금융기관 학자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교수회, 오죽원 이사장과 면담

심교수 사건 수습과 규정 개선 약속

교수회(회장=심익섭·행정학)가 심희기 교수 재계약 탈락과 관련해 오죽원 이사장과 논의하고, 법대 교수들에게 '서한'을 보내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죽원 이사장은 지난 25일 심익섭 교수회장과의 면담자리에서 심희기 교수 재계약 탈락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학교측에게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 촉구 △사건을 유발한 행정책임자에게 사태 수습의 노력 촉구 △교육부의 재

심결과나 법적인 판단이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교수회는 지난달 24일 법과 대학 교수 11명에게 심희기 교수 사건 해결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교수회는 서한을 통해 "각 단체들의 계속되는 항의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법과대 교수들의 사태수습노력이 전무하다"며 법과대 교수들이 이 문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불교대학발전을 위한 공청회 개최

"불교학 초석 다지는 계기로"

우수교수유치, 전문대학원 설립 등 논의

불교대학이 설립 95년만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다각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내일(5일) 열리는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공청회'에서 4개 분야의 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거친 후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불교대 학자인 보광스님의 '21세기 불교대 불교대학의 새로운 비전' 기조강연으로 시작하는 이번 공청회는 △학부발전 연구방안 △교과과정 연구방안 △교수 및 연구기관 진흥방안 △학과와 전문대학원 신설 연구방안 등 4개 분야에 걸쳐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주제발표는 분야별로 팀을 구성한 제2기 불교대학 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한보광·선학)가 지난해 5월 제1기 불교대학 발전연구위원회가 발표한 '불교대학 발전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수렴·보완해 마련한 것이다.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학부 발전 연구방안은 1인 1사찰 장학금 추천제도를 통해 추천입학과 외부장학금 유치를 확대하는 한편 승려 학생 입학비율을 증진하는 대신 전공선택의 제한을 푸는 방안을 제시한다. △교과과정 연구방안은 교수들의 책임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 연구에 전념하게 하고 유사과목을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교수 및 연구기관 진흥방안은 한교수당 학생비율을 최대 10명 늘이는 한편

'우수교수초빙연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기존의 불교문화연구원을 중심으로 한국불교문화 센터를 설립해 역경원, 동서철학연구원, 국제원화학회 등 학내 불교 관련 연구기관을 통합·운영할 방안도 수립했다. △학과와 전문대학원 신설 연구방안은 불교대학원을 불교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불교사회복지학과, 장례문화학과 등을 신설해 사회변화에 따라 인력을 배출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 불교대학 발전기금조성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2006년 8월까지 30억원의 불교학 진흥 기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불교대 학장 한보광 스님은 "기초인문학위기 현상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불교학 연구를 기피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교학 진흥을 위한 이번 공청회는 불교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인재들을 양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학과 학과회의 도중 최모교수가 동료교수에게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석림회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최교수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으며, 수업 거부부사를 밝히기도 했다.

김현중 기자 dizzy20@dongguk.edu

학교·노조 임단협 타결 임금 5% 인상하기로

지난달부터 진행된 학교측과 직원노조(위원장=김정대)간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됐다. 직원노조는 내일(5일) 중강당에서 열리는 임시총회의 승인을 거쳐 임금·단체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금협상 결과 지난해에 비해 임금은 5%, 효도수당은 10만원씩 각각 인상됐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노조와 학교 측은 △사무기능직 직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 △정관정원 조정 위해 학교와 노조가 상호 노력 △대학 명의의 직원 경조사비 지급 △유니온상 제도 도입, 직원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문구 정리 △총장선출제도

는 현행대로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단체 보험에 가입하며, 구체적인 사항들은 이후 노사가 협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기대의원 총회 오는 7일 총학생회 회칙개정 등 논의

상반기 정기 대의원 총회가 오는 7일 오후 3시 본관 중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총학생회 회칙개정 △총학생회 회칙개정에 관한 찬반 투표와 △우리 대표가 수배반대에 대한 발언 △대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동체문화 설문조사가 진행되며 △학생회비 인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회전무대

명상의 경지

○...교양필수과목인 '자아와 명상' 수업은 출석만 부르고 나면 반 이상의 학생들이 사라지는데.

이유인즉 교수가 출석을 부르는 사이 대답만 하고 몰래 빠져 나가기 때문이라고.

학점없는 수업이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도망가는 이들이 수업의 분위기마저 해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자아와 명상 시간에 배우는 명상의 경지, 안 들리고 사라지거"

질서 상실의 시대

○...동국대 BSC에서는 차례대로 컴퓨터를 사용하기 위한 번호표제도가 있으나 마나하다는데.

알아보니 학생들이 번호표 없이 아무 자리에나 앉아 정작 번호표를 갖고 있는 이들은 제 번호 컴퓨터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이들 때문에 질서를 지키려는 학생들조차 번호표에 상관없이 앉는 실정이다.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웬만해선 질서를 지킬 수 없다?!"

이열치열

○...뜨거운 날씨에 뜨거운 물, 이열치열(?)

문화관 그릴 식당에서는 얼굴을 붉힌 채 땀을 흘리며 나오는 학생들이 많다는데.

이유인즉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식수대 물을 여전히 뜨겁게 해놓아 학생들이 물 마시기 힘들어한다고.

이 때문에 근처 매점에서 물을 사 마시는 학생들까지 있으니.

사 마시는 물을 마시던 학생 월, "이게 뭐야, 이 여름에~ 도대체가 이해야 안 돼!~"

행방불명

○...나도 반찬이 있었으면 좋겠다!

상록원 식당에서는 반찬 없이 밥을 먹는 학생들이 자주 눈에 띈다는데.

알아보니 자율배식대가 아침식사 시간을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빈 식판만 들고 돌아오기 일쑤라고.

부족한 반찬을 제공하기 위한 자율배식대가 전사용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월, "자율배식대 반찬은 수취인불명?!"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취지
 - 강의에 대한 합리적 분석 및 평가결과 환류(feedback)를 통하여 강의의 질을 향상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의 교육부문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교원업적평가 및 기관평가시 교육부문에 대한 객관적이며 신뢰성 있는 평가자료를 산출하기 위한.

- 시행시기 : 2001. 6. 11(월) ~ 6. 22(금)일 중
- 대상 : 2001학년도 1학기 개설 전체 강좌
- 응답자격 : 2001학년도 1학기 재학생 전체

- 응답요령
 - 본교 홈페이지(www.dongguk.edu)에 접속 후 강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항목 클릭.
 - 본인의 학번 및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강좌를 선택하고 주어진 문항의 해당사항을 선택.
 - 문항 건의사항란에는 자유롭게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바람.

- 공지 사항
 - 학생이 응답한 의견은 보다 나은 강의를 목적으로 하며, 그 응답 내용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않으니 진지하고 성실히 응답하기 바랍니다.
 - 무성의한 답변(5점척중 일렬로 답변)은 피하기 바람. 건의사항란에는 5점척 답변이 곤란한 사항 등을 서술하기 바랍니다.
 - 학생은 자신이 수강하는 전체 강좌에 대하여 설문문답을 하기 바랍니다.
 - 설문 응답을 제고를 위하여 수강 강좌의 1/2이상 설문에 응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하여는 인터넷 및 본교 전산망에서 성적공시 조화를 제한합니다.

교무처

여름방학 사회봉사단원모집

2001학년도 여름방학 사회봉사 단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대상 : 재학생, 교수, 직원
- 신청서 접수기간 : 6. 4(월)~8(금)
- 봉사활동기간 : 6. 25(월)~8. 31(금)
 - ※ 봉사활동 내용 및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 학점인정 : 여름방학기간 중 33시간 이상 봉사활동시 사회봉사 1학점 Pass 자유선택
 - ※ 학점인정시기 : 2001학년도 2학기
 - ※ 봉사학점은 수강신청 제한 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 이수학점으로는 재학기간 중 2학점까지 인정함
- 접수처 : 동국참사람봉사단 (본관3층 학생복지실 내 ☎2260-3049)
- 봉사활동대상단체 : 약 70여개 단체 (봉사활동내용 : 500여개 프로그램)

- 봉사대상단체와 봉사기간 및 시간을 본인이 자유롭게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상당수의 기업에서는 사회봉사활동의 경험을 중요시하여 채용 과정에서 봉사활동 여부를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사랑봉사단

고시장학생 선발시험

아래와 같이 2001학년도 제1학기 고시장학생 선발시험을 실시하오니 수험생들의 많은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01. 6. 29(금) 10:00~12:00
- 장소 : 정보문화관
- 대상 : 본교 재학생 및 복학예정자
- 선발인원 : 총 80명(등록금 72%:40명, 36%:40명), 1차 합격자 불포함

구분	학년	시험과목
사법시험	1	헌법, 영어
	2	헌법, 민법총칙, 형법
	3/4	헌법, 민법, 형법
행정고시	1	영어, 국사
	2/3/4	영어, 헌법, 국사
외무고시	1	영어, 국사
	2/3/4	영어, 헌법, 국사

※ 사법시험의 제2외국어 선택과목은 2004년부터 폐지되며, 과목별 점수편차가 격심하므로 시험과목에서 제외하였음.

- 원서접수
 - 기간 : 6. 4(월) ~ 6. 15(금), 10:00 ~ 17:00
 - 장소 : 계산고시학사 2층 사무실
 - 지참물 : 사진 1매
- 선발시험 및 합격자 발표
 - 선발시험 : 7. 9(월), 12:00 (고시지도위원회)
 - 합격발표 : 7. 13(금), 계산고시학사 계산관
- 주의사항
 - 자격요건 : 졸업학점 140학점 → 17학점 이상 취득자, 120학점 → 15학점 이상 취득자이어야 함.
 - 2002학년도 1학기 선발시험에서는 고시지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모의고사의 참여회수 및 성적을 50% 반영하므로, 반드시 모의고사에 응하여야 함.

고시지도위원회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

평생교육사(구 '사회교육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합니다.

- 대상자 : 2001년 8월 졸업예정인 평생교육사(구'사회교육전문요원')과정 이수자
- 자격 : (1) 학칙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2) 평생교육교육 이수학점이 20학점이상(사회교육실습 포함)인 지로서, 평균성적이 80점이상인 자.
- 접수기간 : 2001. 6. 11(월) ~ 6. 15(금)
-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소정양식)
- 교부 및 접수처 : 사범대학 교학과

사범대

제17회 여름 창작교실

- 시간 : 2001. 6. 22(금) - 25(월) - 3박 4일간
- 장소 : 강화 유스 호스텔
- 대상 : 창작에 뜻을 둔 동국대학교 전학생
- 참가조건 : 시5편, 소설/희곡 각 1편(중복가능)
- 작품마감 : 2001. 6. 4일까지
- 작품제출 : snowcuri@hanmail.net
- 문의 : 창작교실 준비주체 설문서(016-344-3740)

문과대학 국어국문학부,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합시다

하절기 에너지 절약운동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이 에너지절약 운동을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시는 전등 및 PC의 전원을 끄도록 합니다.
- 강의가 끝나면 전등을 소등하고, 독서실 및 도서관을 이용합니다. (함 두사람이 전 강의실에 불을 켜고 있는 사례가 많음)
- 에어콘은 28°C 이상에서만 사용합니다. (설정온도를 28°C에 맞추고 수동작동을 하지않도록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처 시설관리팀으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평화유지 기여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금강산 관광 사업은 남북 화해 국면을 여는데 간접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돌파구이자 남북주민간 접촉 확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때문에 이를 중단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후퇴시킬 소지가 크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의 군사화를 개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로 하여금 북한의 변화 의지를 감지케 한다. 군사항의 개방이 비록 의회화 특이라는 경제적 실리 추구에 기인하고 있기는 하나, 남북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금강산 관광수입의 군사적 전용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나 북한을 개방하는 효과도 상당하다.

재평가·재협상 시급

금강산 관광은 무엇보다도 북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분단 문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주고 있다. 온정리를 비롯한 여러 북한 마을에 대한 관찰을 통해 북한의 실상을 경험할 수 있으며, 북측 환경 관리원들과 여러 주제에 관한 대화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북한 인식

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금강산 관광사업은 보다 경제적인 사업, 보다 효율적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전반에 걸쳐 재평가하고, 수익 사업 분야를 개발하되, 북한과의 재협상과 함께 정부 지원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확보하는 대책이 시급하다.

육로관광 조속한 실현 필요

이를 위해서는 첫째, 관광경비의 절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관광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육로편을 이용, 금강산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 지역이 1일 관광권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단체관광버스로부터 점차 개인용 자동차로 갈 수 있도록 하며, 기간별 내용별 차별화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입산료 명목의 관광 비용을 축소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대북한 협상을 통해 추진하되, 입산료 인하에 따른 북한 수입 감소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직접 관광객을 상대로 음식점, 숙박업, 토산품 판매를 위

한 농민시장을 개설하고 각종 공연사업을 운영, 수입을 확보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보다 많은 관광객 확보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중고교 학생 및 대학생들의 수학여행, 국토순례 및 졸업여행 코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를 타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강산 지역을 이산가족 상봉 및 남북경협 상담을 위한 체류장소로도 이용하는 방안과, 국제 관광 코스로 개발, 외국인의 수요를 창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적 상품가치 창출해야

넷째, 금강산 지역을 대중관광 지역으로서의 위락 여건 확충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현재의 금강산 관광은 대중관광적 상품가치를 지니고 있지 못하다. 관광객이 관광하면서 돈을 지출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북한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해상호텔 건설에 카지노와 면세점의 운영을 허가하는 한편, 면세점 운영에 북한도 참여하되, 대신 입산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김영운 통일연구원 상임연구원

관공'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 장전항에서 금강산으로 가는 전체 지역을 자유통행지역으로 설정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이상의 조치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남한 정부가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북한에 알리고, 북한도 이에 상응하는 노력을 보여 줄 것을 설득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특히, 육로 관광의 조속한 실현과 금강산 관광특구 내에서 여행객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긴장완화 등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민족간의 사업으로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금강산 지역 내 일정지역을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통제된 관광'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할 수 있어야 한다.

희망의 '단결과 혁신'을 바라며

'고난의 시기를 뚫어온 한총련의 단결과 혁신을 위한 자리'임을 선포하며 제9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장=최승환·부산대 총학생회장, 이하 한총련) 출범식이 지난 96년 이후 최대의 학생행사로 성대히 치러졌다. 경찰들의 원천봉쇄와 참가자 전원 검거령이라는 이유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진행돼야만 했던 지난날의 출범식을 뒤돌아 볼 때, 한총련 출범식의 평화적 개최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가슴 벅찬 일이다.

이번 출범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최지를 결정하는 문제로 벌어진 한양대 학생들의 격론은 그동안 학생회가 가졌던 학생운동의 관성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더 이상 대중을 소외시키면 화가 난 대중은 언제라도 거세게 항거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지금 새로운 출발선에 서있는 9기 한총련은 구성원들의 날카로운 비판과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재도약해야 할 시점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승환 의장이 선거공약에서 밝힌 바 있는 '통일단결과 운동의 대중화'가 가장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재 한총련 강령에 합의하지 못하는 학생운동 조직들과는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연대의 끈을 놓지 않고 공동투쟁을 펼쳐나간다면 언젠가는 모두가 크게 하나되는 조직적 통합체를 만들 수 있을 꺼라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한총련의 활동범위와 방향에 대한 자기반성을 미룰 수 없게 됐다. 이제 한총련은 무서운 '관성'의 늪에서 빠져나와 대중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희망'을 찾아야 한다. 이에 '단결'하고 '혁신'하려는 한총련 일꾼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 연합안에 대하여

대구·경북 지역 5개 국립대학이 대구로 연합대 건립을 추진한다는 공동발전계획안을 공식 발표해 지역민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대학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수립한 발전계획은 지난해 12월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국립대학 발전계획을 근거로 한 것이며 연합대 출범은 다른 지역보다 빠르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가 당초 계획에서 유보한 책임운영기관화, 교수계약임용제 및 연봉제 도입 등의 내용이 발전계획에 내재되어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강행하려는 것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우선, 과거에 실패한 적이 있는 발전계획안을 공식 발표한 것은 성공여부에 개의치 않고 지역주민이나 타 대학에 과시하려는 행위로 해석된다. 지방대의 위기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런 행위는 학교 이미지 홍보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타 대학은 재정지원을 미끼로 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국립대학발전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내 구성원들의 충분한 합의를 얻지 못한 상태로 발전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충성' 행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국가재정지원을 앞두고 예산확보를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런 행위들은 다른 수많은 지방 대학들의 생존 전략을 저해하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대학자체의 장기적인 발전가능성이 없는 허구적인 계획일 것이다.

대학의 진정한 발전 계획은 구성원들의 자율적 판단과 합의는 물론 지역의 포괄적인 발전계획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5개 국립대학은 공동발전계획안을 백지화하고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체적인 지역 대학발전계획안 수립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

이동전화 요금 인하 논란

소비자 권리찾기, 시장논리와 맞대응

올해 우리나라 이동전화 요금 가입자가 총 인구의 60%인 2천7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97년 가입자가 700만 명 수준이던 것을 보면 이것은 세계적으로도 찾기 힘든 기록적 성장이다.

이동전화사들은 이같은 가입자 확대와 더불어 단말기 보조금제도 폐지와 기업합병 등으로 판매비용이 축소되어 업체별로 많게는 1조 2천억원 적게는 1천억원 이상의 흑자를 달성했다. 또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하면 앞으로 이동전화시장이 꾸준히 성장해 2010년이면 3천200만 명 가입자에 20조원 이상의 매출규모를 갖게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동전화 요금과 서비스는 가입자 700만 명 수준이던 97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지난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가운데 이동전화서비스 상담건수가 1위를 차지했다. 소비자 불만은 대부분 높은 요금과 부당행위로, 서비스에 비해 요금이 비싸고 길거리에서 미성년자를 무더기로 가입시킨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참여연대, YMCA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동통신요금인하 시민행동 네트워크(이하 시민행동)'를 결성하고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요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 홍보실 김준 씨는 "현재 이동전화사들은 CDMA와 IMT2000 등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남아도 요금을 내릴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동전화사들은 "그동안 과잉경쟁으로 인해 쌓인 적자가 많아 여유가 없고 현재 요금은 외국보다 낮으므로 소비자들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박원석 부장은 "차세대이동통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사업자가 신규투자를 유치해야지 부담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식의 논리는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시민행동에 의하면 외국보다 요금이 낮다는 주장은 절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일뿐 올해 국민소득에 대비해 보면 이동전화 요금수준이 한국 5.14%, 미국 1.26% 캐나다 1.83%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고 한다.

이동전화요금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와 이동전화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정보통신부 장관 앞으로 요금인하를 촉구하는 민원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최영동 변호사는 "현행 전



기통신사업법에는 이동통신 요금인하를 강제할 법적 권한이 있다"며 정보통신부가 요금인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동전화 요금과 관련해 정부가 SK 텔레콤은 요금 책정시 정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고 나머지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책정해 정부에 신고만하면 되게 돼 있다. 자율신고제에 비해 인가권은 정부가 요금 책정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다.

그러나 인가권은 사업자가 제출하는 원가계산을 사후검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억제하기에는 용이한 제도지만 인하를 가져오기에는 어려운 제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논리에 따르는 이동전화사들에게 자발적인 요금인하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부는 이동전화 요금을 이동전화사들의 자율에 맡기기보다 직접 나서 소비자들이 정당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행인 송석구, 편집인 겸 주간 김호성, 부주장 백승석, 편집국장 박상관, 편집장 김은선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edu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구독문의 : (02)2260-3491·2, 동대신문 홈페이지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7가 26, 전화 (02)2260-3491·2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정동 707, 전화 (054)770-2658

해킹, 신기술 개발? 또 다른 범죄!

무조건 미화하기보다 강력한 대응 필요



(Fallacy)다. 본래 해킹이라는 용어는 1950년대에 MIT의 학생들 간에 사용하던 은어였다. 그 뜻은 기계의 구조를 살펴보고 각종 실험을 통한 탐구행위를 함을 의미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가지 유념하여야 할 사실이 있다. 그들이 대상으로 삼았던 기계는 컴퓨터가 아닌 학교내의 철도 모델이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킹의 어원은 컴퓨터와는 무관했다. 컴퓨터와의 연계를 1959년 이후에 이루어져 초기에는 본연의 기술 탐구가 이루어졌으나 그 후 점차적으로 범죄기법으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형태에 이른 것이다.

또 해커의 구분은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의 해커를 '고전적 해커'라 하고 그 이후의 해커를 '범죄성 해커'라고 분류한다. 오늘날 해커의 정의에 관하여 다소 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이러한 데에 연유하고 있으며, 또한 자기들을 고전적 의미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반면에 그들의 행위는 현대적 의미의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

해킹 범죄의 심각성

사실 그들이 컴퓨터의 신기술개발을 위해서 해킹을 한다지만 남의 시스템에 인가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침투하는 행위 그 자체가 이미 실정법상의 위법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국내외의 어느 해커에 의해서도 사회에 공헌하는 새로운 컴퓨터 기술이 개발되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없다. 악성 '웜'을 제작 유포하여 큰 피해를 준 모리스는 자

기로 인하여 사회에 보안 경각심이 고취되었으니 오히려 자기가 공로자라는 주장이다. 이것을 바로 웨러시라고 한다.

둘째, 국내의 해킹의 몇가지 사례들이다. 외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크리포드 스톨의 빼꾸기 알(Cuckoo's Egg)을 들 수 있다. 75건의 회계 착오를 끝까지 추적한 끝에 서독의 해커가 미국방 시스템에 침투하여 주요 정보를 훔친 후 미국 소련의 KGB에 넘기려는 장면을 확인하고 검거한 사건이다.

또한 세기의 해커라고 불리는 케빈 미트닉의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는 미국방 시스템에 침투하여 1급 비밀을 빼내고 모토롤라와 썬 등 여러 기업 시스템을 해킹한 죄로 5년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카이스트에서 개최한 국제 해킹 대회에서 1등을 한 수상자가 벤처를 차려 놓고 여러 기업의 시스템에 침투하여 정보를 수집한 죄로 검거된 사건이 발생했다. 참으로 어이없는 년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국내외적으로 해마다 해킹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에 서만도 4월 현재 537건이나 발생하여 이미 작년의 4.7배로 늘어난 것이다.

셋째, 그들은 결코 컴퓨터 기술의 전문가가 아니다.

그들은 다만 특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한 침투 수단을 알고 있을 뿐이다. 시

중이나 인터넷상에는 많은 자동화 해킹 툴이 나와 있다. 그들은 단순히 그것을 이용할 뿐이다.

그들은 또한 새로운 보안기술을 해킹 범죄에 역이용하고 있다.

총체적인 대책 마련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해킹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적, 제도적, 기술적인 모든 조치를 하나로 결집한 총체적인 대응을 하여야 한다. 또한 더이상 해킹을 전문기술인양 미화시키거나 해커를 특채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모순을 범해서는 안된다. 그것이야말로 자가당착이다. 그리고 국내의 해킹에만 국한하지 말고 국제적인 해킹 침투에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국가와 개인의 중요 정보자산을 성공적으로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재우
국제정보대학원 석좌교수



본교 홈페이지 보안 상황 점검

기술마련과 함께 사용자 의식도 전환해야

“교수님, 홈페이지가 이상해요.”

어느날, 평소 자주 이용하던 홈페이지 화면이 갑자기 심한 목살이 가득한 화면으로 바뀌는 일이 발생했다. 자유로운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 원활한 수업의 진행을 위해 마련된 한 학과의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한 것이다. 구체적인 피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같은 문제는 비단 본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대학마다 홈페이지 보안의 허술함을 노린 해커들에 의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해킹에 대한 보안책으로는 방화벽(Firewall)이나 침입경보장치(IDS) 등 기본적인 보안장치를 구축하는 것과 보안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서울캠 홈페이지에는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내부 자원을 보호하고 허용된 서비스만을 안전하게 공개하는 방화벽이 별도로 설치돼 있지 않다. 하지만 방화벽과 같은 기능을 하는 Router를 통해 인증되지 않은 포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형식으로 해킹에 대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종욱(정보관리학) 정보관리실장은 “안전한 보안책 마련도 시급하지만 사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더욱 중요하다”며 “무엇보다 주기적으로 컴퓨터를 검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주캠 홈페이지도 정보보안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현재 방화벽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나 통화량(Traffic)이 많을 경우 방화벽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 방화벽만으로는 항상 안전하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경주캠 정보관리실(실장=조영석·컴퓨터학)은 상반기 내로 보안솔루션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상의 패킷을 분석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과 Process를 감시함으로써 침입여부를 판단하는 서버 침입탐지 시스템 등의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학술부

imperial@dongguk.edu

고수동정



▲고규환 (북한학)
=지난 2일부터 내일(5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제2회 한일 동북아시아연구회 세미나에 참석.



▲진상운 (건축공학)
=다음달 17일부터 24일까지 미국 시카고에서 열리는 'A/E/C Systems Show & Conference'에 참석.



▲강호덕 (산림자원학)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되는 유엔산림포럼에 정부 자문관으로 참석.



▲권영익 (산업공학)
=오는 11일부터 8월 18일까지 미국 피츠버그 캐넌기얼린 대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전문가 과정 연수.

손병성, 송복현, 승우성, 신동화, 안광삼, 안영순, 양현정, 엄구섭, 연광스님, 오진욱, 우순덕, 유순희, 윤석분, 윤용일, 이경희, 이문환, 이민익, 이병석, 이성자, 이영립, 이유행, 이정균, 이정훈, 이지은, 임욱이, 임태환, 정각사, 정구민, 정인용, 조순욱, 조현실, 조혜선, 채재희, 최영래, 최옥신, 최재원, 추상길, 한덕희, 한상수, 한용길, 홍인자, 홍태성, 익명

▲2만5천원 이장자, 최가연
▲2만원 강병권, 강병기, 고병성행, 광경철, 광재우, 구종숙, 권창호, 김순정, 김갑순, 김경렬, 김관식, 김덕애, 김동석, 김미자, 김병자, 김복순, 김선욱, 김성진, 김수연, 김순욱, 김안심, 김양남, 김용기, 김용순, 김은희, 김재화, 김종택, 김종호, 김진후, 김희배, 남궁웅, 노기호, 민은자, 박순석, 박승복, 박영희, 혜진스님, 박찬길, 서동진, 신미선, 정압스님, 안영근, 안호연, 안현순, 오세열, 오정애, 윤경자, 이상선, 이순자, 이용재, 이정숙, 이철은, 이태제, 이종환, 임미자, 임영숙, 임창주, 장인정, 장점영, 전수련, 정금연, 정혜선, 조숙영, 조은숙, 조정숙, 주진우, 지상호, 차은자, 최도근, 최형기, 한도자, 한미순, 한예석, 홍등미자, 황일환, 익명 (7건)

▲1만1천원 위아름
▲1만원 강경자, 고경애, 구내인, 구승진, 권영자, 권운선, 권태식, 김귀래, 김동선, 김동현, 김미화, 김민주, 김봉순, 김선녀, 김순녀, 김승현, 김영근, 김영순, 김영자, 김영주, 김영호, 김옥래, 김옥희, 김용남, 김용순, 김은경, 김은주, 김재석, 김재심, 김지문, 김홍례, 김한숙, 김현정, 김호분, 김홍환, 나명식, 나정수, 노태원, 니헤이다프오, 문정순,

문찬성, 민다산, 박봉규, 박봉규, 박상남, 박세광, 박수현, 박순배, 박영자, 박옥경, 박옥득, 박용만, 박원자, 박인숙, 박정열, 박진신, 박하린, 방금순, 방희석, 배정화, 배혜경, 보덕현호, 서영자, 서은예, 서일식, 서재용, 서철호, 선이자, 성재우, 송광지, 송문자, 신유순, 신창호, 안효민, 엄지연, 엄춘득, 여영주, 오정숙, 오정석, 오정애, 오현정, 왕완희, 우영자, 우정분, 우정스님, 우진원, 원용호, 유숙현, 유옥희, 유월광화, 유진원, 유한중, 윤경열, 윤경희, 윤두연, 윤옥순, 윤대선, 윤필선, 이경자, 이경화, 이기재, 이덕열, 이도섭, 이도희, 이병기, 이병로, 이병호, 이봉숙, 이선일, 이성근, 이소영, 이애자, 이연순, 이영재, 이영호, 이완재, 이윤남, 이은희, 이을매, 이익재, 이재강, 이재희, 이점서, 이정임, 이정철, 이진복, 이찬연, 이창주, 이한구, 이현숙, 임종운, 임지은, 장간홍, 장노미, 장명훈, 장미순, 장영철, 장재욱, 전선훈, 정경호, 정구민, 정근동, 정동권, 정문용, 정복순, 정성희, 정옥분, 정우진, 정옥래, 정은조, 정정순, 정종필, 정혜영, 정호영, 조대영, 조재숙, 조경옥, 조춘산, 조한철, 주강우, 진영숙, 차명환, 채지혜, 청안사, 최길산, 최남득, 최문자, 최봉래, 최봉호, 최수봉, 최영숙, 최재곤, 최홍희, 탁자우, 표일웅, 하흥용, 한덕순, 한만식, 한상덕, 허찬구, 홍승택, 홍용서, 홍용숙, 홍팔주, 홍영주, 황인자, 황종연, 익명(6건)

▲8천원 안정자
▲5천원 김부용, 김종화, 박병화, 박삼휴, 박성배, 신정자, 오금주, 익명(2명)
▲3천원 김희광조, 백영애
▲1천원 임병식



민태진 교수의

과학이야기 (5)

항생물질 페니실린

항생물질은 미생물이 만들어 내는 화학물질이 다른 미생물의 발육이나 생활기능을 저지 또는 억제하는 약품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는 감염세균을 죽이는 것을 벗어나 암세포의 증식이나 억제 작용을 하는 물질까지 포함하여 정의한다.

20세기 초 에틀리히(P. Ehrlich)에 의하여 유기비소 화합물인 살발산(606호)이 발명되면서 매독균이 구축되었고, 질병에 대한 화학요법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이 화학요법의 총아로 등장한 것이 항생물질의 원조인 페니실린이었다. 이것을 발견한 플레밍(A. Fleming 1881-1955년)은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 런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세인트메리 병원에서 세균에게는 해를 주고 사람의 조직세포에 대하여는 아무 해가 없는 항생균성 물질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그 후 그는 영국 왕립의학회의 교수가 되었고, 1차 세계 대전 중에는 왕립 군사의무대에서 일하면서, 부상당한 병사들이 가스괴저로 계속 죽어가는 것을 보았다. 연구실로 다시 돌아온 그는 세균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면서 포도상구균을 한천배지에서 배양하던 중 배양접시 뚜껑을 닫는 것을 잊고 며칠동안 방치하게 되었다. 그 후 이것을 버리고 하다가 우연히 보니 어디선가 포자가 날아와서 생긴 곰팡이 주변에 포도상구균이 자라지 않은 투명한 고리를 발견하였다. 이를 자세히 조사해 본 결과 이것은 빵과 같은 식품에 달라붙어 자라는 '페니실리움 노트툴라'라는 푸른 곰팡이로서 세균에는 강력한 활성을 갖지만 인간에게는 아무 해가 없는 곰팡이의 일종임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 물질을 '페니실린'이라 이름을 붙여 영국 실험병리학 학술잡지에 발표하였다. 그 후 그는 영국의 체인(E.B.chain), 플로리(H.W.Flory)와 함께 이 곰팡이로부터 이것을 분리정제하여 그 화학구조를 결정한 다음 많은 양을 얻기 위하여 화학적인 방법으로 이를 합성하였다. 그들은 이 물질을 800배로 묽혀 실험하여도 화성을 그대로 지닌 강력한 항균활성 물질임을 확인하여 세균 감염성 질병에 대한 새로운 항균제 치료법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그 때의 의사들은 이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재평가

를 받기 시작한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뒤 많은 부상병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된 때부터였다. 1943년 플레밍은 이로 인해 영국 왕립학회의 정회원으로 선출되었으나 그 다음 해에는 영예로운 '기사' 작위를 받았다. 칼 란트슈타이너에 의한 혈액형 발견으로 제일의 의학혁명을 야기한 이래, 플레밍 등은 강력한 항균활성 물질을 발견하여 또 다른 제이의 의학혁명을 일으켰다. 그 공로로 체인과 플로리와 함께 그는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하였다. 그 후 미국은 이 페니실린의 공업적 합성법을 개발하여 산업화 하였다. 미국의 세균학자 왈크스만(S.Walkman)이 '스트렙토마이신'을 개발하여 최초로 '항생물질'이란 말을 만들었지만 이것의 원조는 페니실린인 것이다. 그 후 2천여종의 항생물질이 발견되었으나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50여종에 불과하다. 이것을 우리가 처음 사용한 것은 해방 후부터이며 한국전쟁 당시 유일한 항생제는 페니실린이었고, 많은 병사들의 목숨을 구해하였다. 이상과 같이 항생물질의 발견은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다.

▶4면에서 이어짐
조성각, 지연자, 채병찬, 최광의, 최낙복, 최문길, 최석철, 최영욱, 최옥영, 추교정, 한영상, 현옥스님, 홍근영, 홍순아, 홍순의, 홍인스님, 황창호, 익명(5건)
▲8만원 김경복, 만윤빈, 박정호
▲7만원 김형호, 신신하, 오근석, 윤선애, 이창식, 조운래, 조현구, 지면화
▲6만원 공배선, 문정운, 이원식, 전성수, 지수일, 황성문
▲5만7천원 최제민
▲5만원 김미숙, 경봉수, 구소선, 권희재, 권원익, 김경남, 김광선, 김덕연, 김순금, 김신숙, 김옥희, 김은희, 김점희, 김정남, 김철운, 김태진, 명운, 박필술, 배종갑, 성조, 손규원, 손향숙, 손현정, 심삼선, 안순남, 안정사, 양동업, 양우정, 양현용, 여민기, 오금순, 윤광스님, 월광스님, 위연중, 유대화연, 윤진영, 이국현, 이동훈, 이순욱, 이영세, 이원영, 이일승, 이정곤, 이정숙, 이춘순, 이택선, 이형우, 이환익, 일광스님, 장세광, 장창숙, 장택표, 정무현, 정민고, 정연구, 정오성, 정인숙, 정혜련, 조동철, 조성은, 조의구, 조한우, 주광스님, 지보사, 최동호, 최영숙, 최애돈, 한미자, 한영욱, 한홍수, 현건스님, 황규진, 황복희, 희광스님, 익명(5건)
▲4만6천원 익명
▲4만원 김모란, 김경애, 김정환, 김학규, 서영근, 장승택, 정정순, 한상화, 황배영
▲3만원 가산사, 가정희, 김동규, 김영승, 김원중, 김위동, 김용태, 김재성, 덕화심, 박노숙, 박동순, 박영자, 박원희, 박은희, 박장수, 박정애, 박정희, 박현식, 방영기, 백연애, 백윤현, 복지영, 석광호,

▲1억6천5백만원 LG화재해상보험
▲2천만원 김재문
▲1천만원 한마음선원, 최달영
▲984만3천341원 경주캠퍼스구내임대업소
▲5백만원 종립스님
▲3백만원 이인자
▲2백만원 럭키생명보험, 이만
▲1백5천원 송익균
▲1백만원 박상진
▲80만원 2000학년도졸업생일동

▲12만5천원 남병국
▲5만2천340원 김경대
▲4만8천610원 최규철
▲2만3천970원 류풍운
▲1만8천110원 정우영
▲1만6천950원 황우열
▲9천930원 최광제

기금접수 ARS 안내

7000-119
(서울, 경기를 제외한 지역은 (02)7000-119로 하시면 됩니다)

- 금 액 : 전화 1통화에 5,000원 (1일 중복되는 것은 1회만 인정)
- 문의처 :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

☎ (02)2260-3300, 2260-3791~5

시 장 원

그림자



서문여고 3학년
박 소 영

I.
오래된 신발 속처럼
어두운 방 안
치자빛 촛불 하나 드리우고
어머니와 나는 손을 펼쳤다.

엄지 손가락, 깃털처럼 세우고
갈대잎같은 나머지 손가락 몸 누여
나란히 옆으로 맞대면

한 마리는 크고
한 마리는 작은

꼭 닮은 꽃게 두 마리
치자빛 깃털을 지낸다.

옆으로 옆으로만 가는 꽃게
앞으로 뒤로 엮어질 듯 가는 꽃게

집게발로 까딱까딱 불러도
큰 꽃게는 웃으며 옆으로만 갔다

II.
그리고 오늘,
돌아오지 않는 꽃게를 기다리며
거뭇거뭇 애만 태우다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난 깃털,
예전 그 깃털처럼 환한 마당에서
게딱지 같이 붉은 손으로
빨래를 너시는 어머니를 본다
여전히 옆으로만 걸으시는 어머니 아래
못다 널은 빨래마냥 떨어진 그림자
그 때, 내가 만들던 꽃게처럼 작구나

어릴 적 그 들쭉했던 꽃게
지금은 어느 바다 깃털에 있을까
경중경중 달려와
덩치 큰 그림자 떨구는 나는
예전 그 꽃게만큼 자랐는데

서른 세 살,
비로소 나를 보신 어머니
갑옷처럼 단단한 붉은 옷깃 헤쳐
하얗고 부드러운 속살 여며 주셨구나

깃털에 고인 파도처럼
눈가 허열게 시리우고
어머니의 그림자를 감싼다

밖으로 비져 나오는 못난 내 그림자
그러나,
아직도
그 안에 감싸인
작은 그림자가
더 뜨겁게 진하다.

제39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수상자

시부	그림자
장 원 = 박소영 (서문여고3)	장 원 = 박소영 (서문여고3)
우수1석 = 박혜성 (안양예고3)	우수1석 = 박혜성 (안양예고3)
우수2석 = 조윤미 (옥천고3)	우수2석 = 조윤미 (옥천고3)
가작1석 = 강현구 (광주석산고3)	가작1석 = 강현구 (광주석산고3)
가작2석 = 김대룡 (목포덕인고3)	가작2석 = 김대룡 (목포덕인고3)
가작3석 = 이주란 (영광여고3)	가작3석 = 이주란 (영광여고3)

소설부

장 원	친구
장 원 = 민지혜 (안양예고3)	장 원 = 민지혜 (안양예고3)
우수1석 = 이영림 (양천여고3)	우수1석 = 이영림 (양천여고3)
우수2석 = 박은경 (휘경여고1)	우수2석 = 박은경 (휘경여고1)
가작1석 = 백진주 (안양예고3)	가작1석 = 백진주 (안양예고3)
가작2석 = 이동화 (단대부고3)	가작2석 = 이동화 (단대부고3)
가작3석 = 박윤임 (안동여고3)	가작3석 = 박윤임 (안동여고3)

수필부

장 원	엄마의 스무살
장 원 = 양은정 (수리고3)	장 원 = 양은정 (수리고3)
우수1석 = 남주희 (광영여고3)	우수1석 = 남주희 (광영여고3)
우수2석 = 임소연 (정의여고1)	우수2석 = 임소연 (정의여고1)
가작1석 = 이희진 (수도여고3)	가작1석 = 이희진 (수도여고3)
가작2석 = 김희태 (안양예고2)	가작2석 = 김희태 (안양예고2)
가작3석 = 이남숙 (한양대부속여고3)	가작3석 = 이남숙 (한양대부속여고3)

심사위원

시부
신경림 (본교 문예창작학과 석좌교수, 시인)
홍신선 (본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시인)
문정희 (본교 문예창작학과 겸임교수, 시인)

소설부

조정래 (본교 문예창작학과 석좌교수, 소설가)
장영우 (본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황종연 (본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문학평론가)

수필부

김태길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수필가)
김호성 (본교 인도철학과 교수, 본사 주간)
이종대 (본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참신한 상상력과 해석 돋보여

심사평

어느 해와 다르게, 이번 백일장 시들은 질 높은 수준과 양적 풍요를 함께 보여주는 이채로움을 보였다. 특히 고교시절의 낯다른 감수성들이 펼친 대상에 대한 감각적 해석이나 참신한 상상력은 거듭 기리고 다독여도 좋을 만한 일이었다. 장원으로 올린 박소영의 '그림자'는 우선 착상이 참신하고 또 그것을 끝까지 적절한 언어구사로 이어나간 점이 단연 돋보였다. 이른바 그림자놀이로 꽃게를 만들고 또 그 꽃게들이, 지금은 어느 바다 깃털에 있을까 라고, 짐짓 어른스런 생각을 펼쳐놓고 있는 점이 그것이다.

박혜성의 '낙화' 역시 목련나무에서 '꽃이 패인 얼굴의 아버지'를 만나는 특이한 상상을 보여준다. 시적 대상을 자기만의 독창적인 시선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은 이 시의 힘으로 읽힌다. 이 힘은 백일장 나무에서 '밤새워 배내듯 바느질하는 할머니'를 떠올린 조윤미의 '낙화'에서도 그대로 확인되고 있다. 차상으로 올린 두 작품 모두 '낙화'라는 글감을 택한 것도 우연이라면 우연일까.

아무튼 너무나없이 속악한 대중문화에 속절없이 중독되어가는 요즈음 현실에서 이러한 풍요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음은 선자들로서는 아주 흡족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아직도 삶이나 세계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성찰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입상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이번 백일장의 모든 참석자들의 분발을 추구하고 앞날을 기대하여 본다.

신경림 · 문정희 · 홍신선

낙화

내 방 창문을 열자
그 앞에 자라난 목련나무가
아버지처럼 곱이 패인 얼굴로
내 눈과 마주치려고 창 틈새를
기웃거리다

그동안 얼마나 외면했던 얼굴인가
얼마나 등지고 살았던 얼굴인가

한때는 붉고 아름다운 패기로
피어올라 커다랗던 손이
이제는 시커멓게 메마른
작은 손이 되어 내 방 창문을
어루만지고 있다

내가 젊었을 때 말이다

이제는 아버지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노래도 듣기 힘들다

시 우수석



안양예고 3학년
박 혜 성

그 노래를 웅얼거리며
창 밖을 바라보니
한송이 두송이
아버지의 유년의 꿈이 떨어진다

아버지의 발밑을 아얌게
캐버리는 그 꿈들이
아버지의 다리를 뚫뚫하게 만든다

오늘따라 목련나무가
거칠게 흔들린다

친구

제39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수상작

소설 장원



안양예고 3학년
민 지 혜

햇바늘이 들었다. 며칠 밤샘 작업을 한 탓일까. 말을 할 때마다,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혹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조차도 허겁지겁 짜릿하게 아린다. 거울을 보며 햇바늘이 돋은 곳을 송곳니로 꾸욱 눌러본다. 짜릿하게 온 몸에 전기가 통한다. 아프다. 눈물이 핑 돈다. 그래도 계속 해서 혀를 건드린다. 나는 이런식의 고통을 즐기는 편이다. 전기가 통하듯, 불에 데인듯한 고통은 참기 괴롭지만 동시에 말로는 표현 못할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아픈 곳에 자꾸 손이 간다고 했던가. 허끝이 얼얼해져 별 느낌을 받지 못할 때까지 건드려다가 결국 연고를 찾는다. 약통을 뒤진다. 약통이라고 해봤자 비타민제가 들어있던 철통에 반창고나 연고나 소화제 따위를 넣어 둔 것이다. 그 통에서 제대로 된 약을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나는 약통을 뒤진다. 뚜껑이 도망가 버린 연고가 하나, 너무 오래되어서 겹질이 누렇게 변한 반창고 두어개, 이미 다 먹고 상자만 있는 소화제 상자, 그리고 말라버린 빨간약 한 통, 역시 내가 찾는 연고는 없다. 뚜껑을 닫으려다 빨간 약을 집어든다. 빨간 약이라...

빨간약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믿었던 시절이 있었다. 아마 초등학교 사학년, 오학년 그즈음까지였을 것이다. 그건 유독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다. 내 또래 아이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도, 볼장난을 하다 손이 데었을 때도, 가시 박힌 나뭇가지로 갈싸을 하다 팔이 꺾혔을 때에도 언제나 빨간약을 발랐다. 효능이 있는건지, 어떨 때 바르는 것인지 알지 못했지만 왠지 빨간약을 바르면 다 나을 것 같았다. 특히 바르면 빨간약이 꼭 피갓아 멎었어 보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내 또래 남자아이들은 빨간약을 좋아했다. 나도 그랬고, 범석도 그랬다.

범석이는 내 짝이었다. 키도 크고 덩치

도 좋았던 내에 비해 범석이는 왜소한 녀석이었다. 내 어깨까지 오는 작은 키에 강마른 몸. 늘 덩수룩한 머리와 하얗게 질린 것처럼 흰 피부, 교실 한 구석에 늘 처박혀 있는 아이, 시든 잎처럼 힘없는 아이였다. 나는 그런 범석이와 짝이 되는 것이 못마땅했다. 축구와 야구를 좋아하고 언제나 뛰어다니던 나는 범석이가 너무도 갑갑해 보였다. 수업시간에도 쉬는 시간에도 나는 주위 친구들과 떠돌고 놀았을 뿐 범석이와는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다. 그런 내가 어디가 좋았던 것일까. 범석이는 나에게 무척이나 잘해주었다. 연필을 주고, 지우개를 주고, 공책도 주었다. 초콜릿이

는 주로 귀 잡아 당기거나, 가방에 거미 넣어두기, 공책 숨겨두기 같은 장난을 쳤다. 괴롭히고 나면 무척이나 즐겁고 재미 있었지만 왠지 모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짝짓하기도 하고 미안했다. 하지만 나는 장난치는 것을 멈추지 못했다. 아픈 곳에 자꾸 손이 가는 것처럼.

범석이는 오학년이 되었을 때도 내 짝이 되었다. 범석이는 기뻐했지만 나는 싫었다. 내가 괴롭히는 데도 불구하고 나를 좋아하는 범석이가 무서웠다. 나는 범석을 더 괴롭히기 시작했다. 계속 괴롭히면 언젠가는 떨어져 나가겠지. 범석이 도시락에 흠을 뿌리거나 송송이를 넣어두었다. 화장실에 가두어 놓기도 하고 흠탕물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상했다. 내게 약마가 씌인 것처럼 나는 더 심하게 괴롭혔다.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더 크게 괴롭히고 싶었다. 그만큼 죄책감도 컸다. 그러던 어느날, 큰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나는 장난을 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졌다. 순전히 내 잘못이었다. 교실에서 술래잡기를 하다가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진 것이었다. 빨간약을 바르면서 나는 범석을 노려보았다. 아침부터 배가 아프다던 범석이였다. 약을 다 바른 나는 범석에게 갔다.

“아. 이범석! 너 배 아프다고 그랬지. 이거 마셔.”

“이 이거 바르는 약이잖아.”

“이거 만병통치약이야. 몰랐니? 이거 마시면 다 낫는거야. 그러니까 얼른 마셔. 배 아프다면서!”

나는 빨간약을 범석이 코 앞에 들이켰다. 범석이는 주춤주춤 뒤로 물러났다. 반 아이들은 모두 나를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말리지 않았다. 계속 뒷걸음질 치던 범석이는 결국 벽에 부딪혔다. 나는 범석이 입에 빨간약통을 대고 들어 부었다. 입에 약을 물고 있던 범석이는 푸욱하고 약을 뱉어냈다. 마치 피처럼 빨간약이 사방에 떨어졌다. 계속해서 약을 뱉어내며 범석이는 나를 노려보았다. 유난히 하얗던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범석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부터 며칠동안 나는 몸살과 고열에 시달렸고 범석이는 전학을 갔다. 일주일 후 학교에 갔을 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그리고 나도 다른 친구들도 범석을 잊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취직을 하면서 난 수많은 범석이와 마주쳤다. 그리고 또다른 나와 마주쳤다. 유난히도 힘이 없고 약한,



“아, 그 일 기억나. 그때 니가 미웠지만, 뭐 괜찮아. 우리는 친구니까”

한정된 소재 가공재능에 호감

심사평

소설부분 응모작을 읽는 동안 참가학생들의 의욕과 열정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글쓰기에 할당된 시간이 충분히 많지 않았음에도 많은 학생들이 정해진 분량을 채워 흥미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 평소 창작에 관심이 많고 착실히 훈련을 쌓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전처럼 소설의 형식에 미달한 글이 적지 않았다. 소설 이전에 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소설에 적합한 문장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이야기를 만드는 능력이 모자라는 경우 등, 소설에 필요한 기본적 훈련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사례가 종종 눈에 띄었다.

입상작들은 서로 상당한 차이가 있지만, 일단 소설적인 화법을 갖추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대체

로 인물, 행동, 시점, 플롯 등의 요소를 구체적으로 의식하고 쓰여진 작품들이었다. 비교적 한정된 소재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나름대로 가공할 줄 아는 기량을 평가한다.

장원으로 뽑힌 민지혜의 작품은 친구라는 소재를 가지고 단순히 우정의 미담(美談)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힘없는 사람들 일반에 대한 연민의 도덕을 암시하고 있다. 자자분한 예피소드를 삶에 대하여 암시적인 뉘앙스로 끌어올리는 재능에 호감이 간다. 입상자 및 참가자 모두의 정진을 바란다.

조정래 · 장영우 · 황종연

시든 잎 같은 사람과 그를 괴롭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범석을 떠올렸다. 취직을 하고 일년쯤 되었을 때 나는 범석을 다시 만났다. 정확히 이십년이 지난 후였다. 범석이는 여전히 키가 작고 왜소했으며 어디가 아픈 듯 얼굴이 창백했다. 좀 변한 것이 있다면 말수가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범석이는 공무원이 되었다고 했다. 신문기자가 된 나를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했다. 여전히 나를 반기고 좋아했다. 모든 것을 다 잊은 걸까. 나는 조심스레 범석이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꺼냈다.

“아, 그 일 기억나. 그때 니가 미웠지만, 뭐 괜찮아. 우리는 친구니까.”

그렇게 말하는 범석이의 얼굴이 창백하고 무서워 보인 건 왜 그랬을까.

연고를 찾는다. 햇바늘이 돋았을 때 바르는 연고는 맛이 짭짤해서 바르기가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어디다 두었을까. 신발장 위, 소파 밑, 피아노 위, 책상 서랍까지 온통 뒤져보아도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다. 전화기를 들어본다. 그래 여기 있었구나. 연고를 전화기 아래에 깔려 있었다. 연고를 집어 들고 바르러 가려니까 전화벨이 울린다.

“형주나? 나야, 야 너 지금 좀 와야겠다. 범석이 죽었어. 교통사고래...”

집어들었던 연고를 떨어뜨렸다. 범석이의 죽음. 잠시 멍하니 있던 나는 곧 거울 앞으로 가 연고를 바른다. 연고를 바르자 허끝이 화끈거린다. 책상 위에 연고를 두려다 약통을 찾는다. 약통에 연고를 넣는 다. 다 먹은 소화제 상자와 반창고를 쓰레기 통에 넣고 뚜껑을 닫는다. 잠깐, 뚜껑을 다시 열었다. 빨간약을 꺼낸다. 귀에 대고 통을 흔들어 본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뚜껑을 열어본다. 겨우 뚜껑을 열어 통을 뒤집어 본다. 굳은 빨간약 가루가 떨어진다. 가루를 털어내고 빨간약을 쓰레기 통에 버린다. 반쯤 채워진 쓰레기 봉투를 묶는다.

검은 양복을 입었다. 오레간만에 입은 양복이 어색하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선다.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 소각장에 던져준다. 햇바늘이 다 나을때쯤 범석이라도 잊혀지겠지. 빨간약을 버리듯이. 주차장으로 가면서 핸드폰을 들여다 본다. 김형주. 핸드폰의 자기 이름을 바꾼다. 아픈 곳에 손이 간다.

신발 한 짝

소설 우수석



양천여고 3학년 이영림

사내애들은 침을
탁탁 뱉으며
천천히 사라졌다.
사내애들이 사라지자
소년은 흐느끼면서
강물로 침병
뛰어들었다.
하지만 신발은
이미 멀리
흘러가 버리고
없었다.

‘끼익.’

조심스레 현관문이 열린다. 여기저기 멍이 들고 피가 터진, 겁에 질린 눈동자의 소년은 반쯤 열린 문 틈 사이로 한참을 망설인다. 그러다 눈을 짙근 감고 현관으로 발을 들여놓는다. 여기저기 흙투성이가 된 운동화를 벗어놓고, 살금살금 뒤통지를 들고 벽에 붙어서는 주눅든 얼굴로 거실을 쳐다본다. 거실에는 한 사람, 소파에 기대앉은 채 전화기를 붙잡고 있는 엄마 뿐.

“...말도 안돼요. 당신, 아직도 그런 거짓말이에요? 당신한테 내가 몇 번을 속았는데! 이제, 아주 넌더리가...”

곰방이라도 눈물이 고일 듯 하던 엄마의 눈이 세모꼴로 변하면서, 갑자기 말소리가 났다.

“대성이 너, 또 싸웠지?!”

엄마의 따가운 표정이 소년을 노려보자, 소년은 어쩔 줄 모르고 고개를 푹 수그린다.

“지겨워, 지겨워 ... 애비 닮으려고 그러냐, 왜 허구헌 날 피멍이 들어 와? ... 뭐, 누구냐구요? 잘난 당신 아들, 겨우 데리고 살려고 시골구석으로 내려왔더니 싸움박질이라구요, 됐어요? 이제 연락하지 말아요, 듣기 싫으니까. 끊어요! 끝째, 싫다구!”

엄마의 성난 목소리가 전화기 쪽으로 방향을 틀어 쏟아질 동안, 소년은 도망치듯이 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문을 닫고 문에 기댄 채로 흐느끼며 울었다. 소년은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따가운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었다.

날씨는 흐렸다. 새카만 먹구름까지는 아니었지만, 암만해도 개일 듯한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강가에 가까이 앉아 있는 소년에게는 더욱 습기 찬 공기가 피부로 느껴질 터였다. 그래서 그런지 물라도, 무릎을 끌어안고 웅츠리고 있는 소년의 얼굴은 우울해 보였다. 때로는 운동화를 만지작거리면서, 그렇게 소년은 혼자 무언가를 중얼거리며 강물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만 있었다.

“야, 이놈 이거 서울 떼기 아이가?”

귀에 설익은 목소리가 들려오자, 갑자기 소년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다. 새카맣게 탄 얼굴의 사내아이들 너댓이 소년의 등뒤에 둘러싸듯이 서 있었다.

“중~말로 우연이네. 우~연히 강가루 놀러 왔는데 만났잖아. 니도 우리 만 난게 반갑제?”

“ايا, 저 서울떼기가 뭘 아냐. 천치한테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든 우짜냐?”

“그런 거가? 해해해, 참말로 미안다. 니 랑 노는게 하도 좋아서, 또 니 랑 놀라고 안 찾았나. 그렇게?”

“하모! 야, 후딱 놀자.”

“마, 글카자! 야, 임마 인나라!”

사내애들은 킬킬대고 웃으며 소년을 일

켜서는 좀 더 강 가까이로 갔다. 조약돌이 발에 밟힐 정도가 되자, 사내애들 중 하나가 갑자기 허리를 숙이더니 발 밑에서 조약돌을 서 너개 주워들었다. 소년은 울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있었다. 조약돌을 주워든 사내애는, 새카맣게 탄 얼굴로 씨익 웃었다.

“...자, 이거 보이냐?”

사내애는 조약돌 중 하나를 다른 손으로 높이 쳐들었다. 다른 사내애들은 흥미 있는 표정으로 그 사내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내애의 입술이 썩듯 웃는 순간, 사내애는 손에 들고 있던 조약돌을 있는 힘껏 강 쪽으로 던졌다. 조약돌은 호선을 그리며 날아가 강물 속에 풍당 소리와 함께 빠져 버렸다.

“후딱 주서와라!”

그제서야 사내애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게 된 다른 사내애들은 킬킬대며 웃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년은 불안한 표정으로 엉거주춤 서 있을 뿐이었고, 조약돌을 던진 사내애가 그런 소년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후딱 주서오라는데, 귀 먹었냐?”

사내애의 발길질에 소년은 마지못해 강물로 풍덩 뛰어들어갔다. 강이 아니라 그냥 시냇물이라 해도 될 정도로 깊이는 알아 소년의 허리께밖에 차지 않았지만, 강 바닥을 한참이나 더듬던 소년은 조약돌 하나를 가져왔다. 하지만 소년이 내민 조약돌을, 사내애들은 그대로 집어서 다시 강가로 던져버렸다.

“이게 그 돌맹이가? 깨무죽죽하다! 내가 아까 던진 건 허엿다 아이가!”

“이건 너무 크다! 니 뻥신인갑다. 고만 돌맹이 하나 못 줘냐?”

“와 일케 죄맨하노?”

사내애들은 배를 잡고 굴렀으며, 조약돌을 처음 던졌던 사내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계속 소년을 핀잔주며 다시 가게끔 만들었다. 울먹울먹거리듯 듯한 표정으로 예닐곱 번은 왔다갔다한 소년은 그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소년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림그렸다.

“이 팔짱이 서울 떼기야, 그것도 못 주서 와서 찢절대고 짜냐, 사내아가!”

“천치다, 천치, 니 그거 떼라.”

사내애들은 주저앉아버린 소년의 다리와 허리에, 팔 등을 툭툭 걸어차며 소년을 비웃고 욕했다. 한참이나 소년에게 비웃는 말을 퍼붓던 아까의 그 사내애는 갑자기 무언가를 곱곰이 생각하더니, 곧 즐거운 표정으로 사내애들에게 웃음을 띠며 말했다.

“야, 서울떼기가 못하는 거, 우리가 한번 해보고 안 싶냐?”

말소리와 함께, 그 사내애는 소년에게 달려들어서 짹째 신발 한 짝을 벗겨 버렸다. 깜짝놀란 소년이 저항했지만, 사내애는 짹째 그 신발을 있는 힘껏 강물로 던져 버렸다. 사내애들은 휘파람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서 신발을 쫓아가는

시늉을 했지만, 이내 멈춰서서서 우스꽝스럽게 소년에게 외쳤다.

“우짜노? 신발 못 주서오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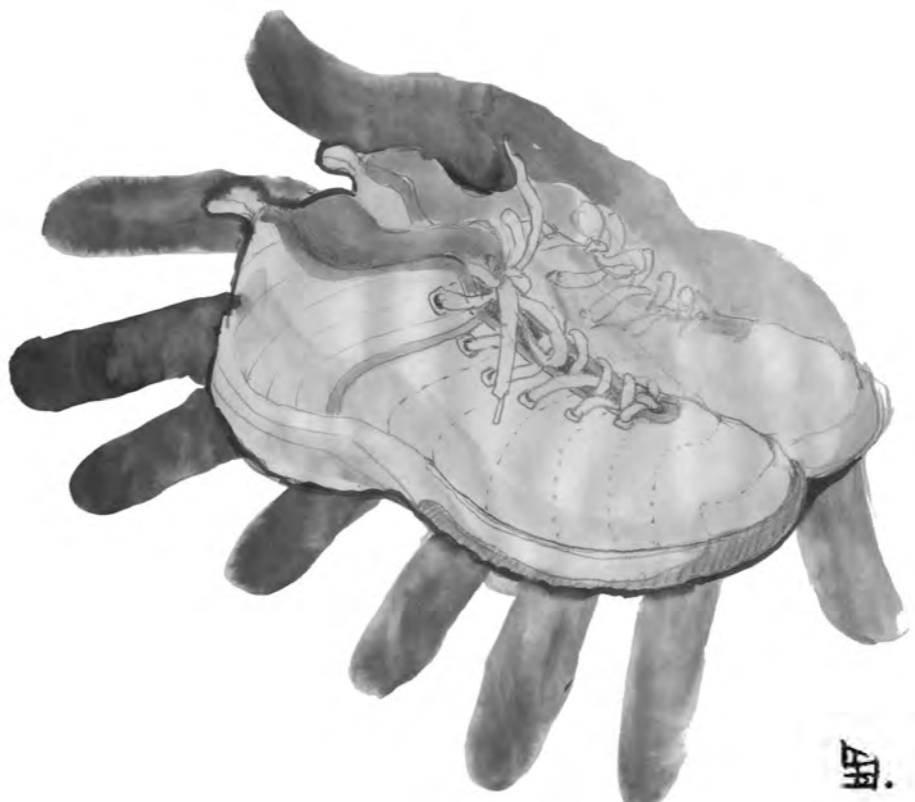
“그기 생각만큼 안 되는구마. 되게 힘들다!”

“...어? 저거 어디 가노?”

소년은 필사적으로 강가로 달려갔다. 하지만 곧 사내애들이 소년에게 달려와서는, 소년의 팔을 붙잡고 못 뛰어가도록 막았다. 사내애들은 빙글거리며 웃고 있었다.

“뉘! 이거 놔, 제발!”

“신발 한 짝 가지고 뭘 그러냐? 그냥 우리랑 놀자, 신발은 또 사달래면 뭘 거 아이가?”



“놔, 놓으리구! 흐흫, 놔!”

소년은 울부짖듯이 몸부림쳤지만, 사내애들은 한참이나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소년의 팔을 놓았다.

“하, 거 가난뱅이 자식이 힘도 더럽게 세구마.”

“에이, 가자! 재미없다!”

사내애들은 침을 탁탁 뱉으며 천천히 사라졌다. 사내애들이 사라지자 소년은 흐느끼면서 강물로 침병 뛰어어들었다. 하지만 신발은 이미 멀리 흘러가 버리고 없었다.

“...대성이? 대성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대성이!”

어둑해진 강가에, 소년의 엄마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엄마는 땀을 닦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한참이나 걸었지만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딜 갔지, 애가...?”

불안한 가득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어느 곳으로 휩 둘러 엄마의 눈에, 거무스레한 물체가 보였다. 발소리를 죽여

가며 천천히 다가가지, 그 물체는 사람의 실루엣이 되었고 곧 소년의 뒷모습이 되었다.

“... 대성이!”

소년의 등뒤까지 다가간 엄마가 소년의 이름을 부르자 소년은 흥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소년의 얼굴은 눈물자국으로 엉망이 되었다.

“왜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니? 찾아 다녔잖아, 뭐 하고 있었니?”

소년은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아무 말도 없었고, 엄마는 한숨을 가볍게 내쉬었다.

“...요즘, 엄마가 신경질 내서 미안해.”

나직한 목소리에 소년의 눈이 조금 동

“그, 그게 정말이냐?!”

소년이 더듬으며 말을 끝내자, 엄마는 놀란 얼굴로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럼 빨리 들어와서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랬어?! 나쁜 자식들...”

“...그 신발...”

소년은 무언가 어눌하게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입을 열었다.

“...서울에서 가져온 건, 그 신발 하나 뿐이라서...흐, 후...”

소년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의 표정은 순간 굳어 버렸다.

“...그래, 다 차압당하고... 네젠, 그 신발 한 켤레 밖에 못 남겨줬지...”

엄마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눈물을 닦던 소년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나, 서울 다시 가고 싶어...친구들도, 아빠도, 보고 싶어...흐흫...”

소년은 다시 서럽게 흐느꼈다. 소년을 안아 달래주려던 엄마의 어깨도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대성이, 엄마아빠가 못나서 미안해... 열심히 살아서, 꼭 다시 서울로 올라갈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하다, 대성이...흐흫...”

소년의 얼굴에서도, 엄마의 얼굴에서도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내렸다.

끔찍.

소년이 느릿하게 눈을 뜬 것은, 해가 동남 창에 환히 뜨고 난 뒤였다. 힘없이 몸을 일으킨 소년은, 수건을 집어 들고 화장실로 가 세수를 했다. 막 물기를 수건으로 닦아내는 순간, 드르르~ 하고 문소리가 들렸다. 엄마였다.

“...엄마, 이렇게 일찍 어딜...?”

아주 즐거운 표정의 엄마는 어리둥절한 소년에게 종이 가방 하나를 내밀었다.

“자, 대성이.”

의아한 얼굴로 소년은 종이 가방 속에 든 상자를 꺼냈다. 그리고 상자를 열어뜨리고 말했다.

상자 속에서 떨어진 것은, 하얀 새 운동화 한 켤레였다.

“돈이 모자라 좋은 건 못 샀지만, 그래도 제일 예쁜 걸로 사왔어.”

웃음진 얼굴의 엄마를 울 듯한 얼굴로 쳐다보던 소년은 외락 엄마에게 앉았다.

“...엄마, 정말...정말 고마워요...”

“그래, 그래. 됐어. 어머, 너 우는 거니, 대성이?...?”

소년을 토닥이는 엄마의 얼굴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셨다. 바다에 떨어진 새 운동화도, 햇살을 받아서인지 더욱 하얗게 보였다.

제39회 전국 고교생 문학콩쿠르 수상작

엄마의 스무살

수필 장원



수리고 3학년 양은정

어느날, 우연히 창고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발견한 적이 있었다. 얼마나 오래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먼지가 쌓여있어 보여 있었다.

“언니야, 우리집에 이런 것도 있었나? 처음 보는데...”

우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손으로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는, 조심스레 앨범을 열었다. 마치, 악명 높았던 어느 해적이 숨겨놓았던 보물 지도를 찾은 것 마냥 가슴이 두근거렸다.

“뭐냐? 이건...”

앨범 안에는, 왠 낯익은 여자가 갈래머리를 곱게 땋고 있는 수줍은 듯 웃고 있었다. 창백하리만치 하얗고 동그란 얼굴은, 정월 대보름의 보름달을 연상시켰다.



수필

“이거, 엄마 처녀적 앨범 아니야?”

“뭐? 엄마가 처녀였어?”

나는 동생의 실없는 농담을 한 귀로 흘려보내고 다시금 조심스레 한 장을 넘긴다.

‘축, 문화의 밤’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린 무대 뒷 쪽에, 남장을 한 여학생 하나가 거만한 태도로 서 있었다. 검은 차이나 칼라, 훑날리는 망토와 놀러온 모자의 차림새로 보아, ‘이수일’ 역할쯤 되는 모양이었다.

물은 흘리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연극’이라니... 가족끼리 천원짜리 비디오 한편 빌려보는 것조차 아까워 하던 사람이 직접 ‘심순애’ 역할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에, 나는 벌어진 입을 주체할 수 없었다.

“언니야, 이것봐! 이거 아직도 우리집에 있지 않아?”

동생이 가리킨 것은, 황토빛이 나는 스킨크림이었다. 언젠가, 엄마가 ‘처녀 짝에는 맞았는데...’ 하며 꺼내 보여줬던 유행이 지나 흔스런 스킨크림, 입지도 못할거, 왜 가지고 있냐는 가족들의 성화에, 뜻없이 지켜내던 바로 그것이었다.

엄마는 ‘이수일’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있는 분홍빛 한복의 ‘심순애’였다. 긴 머리를 한 갈래로 땋아 붉은색의 땀기를 드린 모습에, 나는 묘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세상에, 엄마가 연극부였던 말이야?”

동생이 놀라는 것은 당연했다. 엄마의 ‘문화 생활’이라고는, 신문의 ‘연예·스포츠’면을 읽고 ‘누구랑 누가 이혼한다더라, 내 그럴줄 알았지, 다 남편이 바람이 많은 탓이지...’ 하며, 남의 사생활에 대해 열변을 토하거나, 일일 드라마 따위를 보며 눈

물을 흘리는 것 뿐이었다. 그런데, ‘연극’이라니... 가족끼리 천원짜리 비디오 한편 빌려보는 것조차 아까워 하던 사람이 직접 ‘심순애’ 역할을 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에, 나는 벌어진 입을 주체할 수 없었다.

“언니야, 이것봐! 이거 아직도 우리집에 있지 않아?”

동생이 가리킨 것은, 황토빛이 나는 스킨크림이었다. 언젠가, 엄마가 ‘처녀 짝에는 맞았는데...’ 하며 꺼내 보여줬던 유행이 지나 흔스런 스킨크림, 입지도 못할거, 왜 가지고 있냐는 가족들의 성화에, 뜻없이 지켜내던 바로 그것이었다.

아직도 장롱 깊숙이에 있을, 그 스킨크림을 떠올리며, 몇 장을 더 넘기자 이번에는 낡은 엽서가 여러장 나왔다. 보는 각도에 따라 모양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데, 그런 것이었다. 동생은 호기심이 동했는지, 앨범의 얇은 투명필름에서 그것을 꺼내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은지야, 잠깐만! 뭐라고 써 있는데?”

“왜? 뭐가?”

엽서 뒷 면은 몇 안되는, 마음대로 갈겨 쓴 글자로 채워져 있었다.

“사랑하는 란, 지금 이곳은...”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은지, 나와 동생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동생이 읽는 아버지의 ‘연애편지’에 귀를 기울였다.

“오오, 보고싶소, 라안~!”

과장된 톤으로 마무리를 지은 동생이 킁킁했다.

“1980년이면, 뭐야? 20년 전 러브레터야? 우아...그럼 엽만 몇 살이지? 딱 스물이었나?”

손가락으로 하나씩 훑아보던 동생이 탄성을 질렀다.

엄마와 아빠는, 아주 오래 전부터 펜팔로 알고 지낸 모양이었다.

엽서 중에는, 아버지께서 외국에 나가계실 적에 ‘란’ 이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니, 스무살의 어엿한 숙녀가 될 당신의 모습에...’라는 내용의 낯간지러운 것도 끼어 있었다.

스무살, 엄마는 이 엽서를 받고 스무해를 더 사졌고 이제, 당신의 딸이 스무살이 되려하고 있었다.

그렇게 한 번 더 스무해를 사시는 동안에, 가족이 셋이나 늘었고, 새로운 집과 작지만 자기의 가계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첫 번째 스무살’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엄마는, ‘두 번째 스무살’을 ‘가족’이라는 것을 위해 투자했던 것이다. 스물의 희고 고왔던 손은, 다시 스무해가 지나자 반찬 냄새와 칼에 베인 상처에 덮여 변해버렸다.

“한때 너희 엄마가 학교에서 ‘문화소녀’로 얼마나 날렸는데...”하고, 놀리는 듯한 이모들의 말에 눈을 흘기시던 엄마는, 아마도 ‘꽃다운 스무살’의 자기보다는 다시 살았던 스무해가 더 자랑스러웠던 모양이었다.

“은지야, 우리 이 앨범 본 거 비밀로 하

자. 알았지?”

“왜?”

“그냥, 그냥 그러자...”

동생은 이해가 안된다는 듯, 미간을 약간 찌푸렸지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앨범을 다시 창고안에 넣어두었다.

그날, 늦게 학원이 끝나고 일부러 엄마가 계산 가게에 들렀다.

“어이구, 딸네미 어쩜 일이신가?”

“엄마랑 같이 갈라구...”

나는 가게의 문을 잠그고 손을 톡톡 터는 엄마에게 다가갈 수 없게 팔짱을 꼈다.

“답다, 왜 달랠려고 난리냐?”

“왜? 딸이랑 팔짱도 못껴?”

“애가 왜 이러나... 용돈 떨어졌냐?”

“어휴, 엄마는 어떻게 ‘남만’도 없냐? 가끔은 가게도 쉬고 아빠랑 드라이브도 하면 좀 좋아?”

“내 취미가 돈 벌이야. 쓸데 없이 차타고 돌아다니는... 기름 버리고, 무슨 남비냐? 아이고, 저기 쓰레기 봉지에 쓰레기 한 줌은 더 들어가겠네... 저 아까운걸 어째?”

엄마가 어느 ‘아줌마’들처럼 말하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엄마~ 내가 잠미못 한 다발 선물 해 줄까?”

“잠미못?”

“음...스무송이만.”

“무슨 소리냐?”

“로즈데이잖아, 얼마 작년 로즈데이날, 아빠땀에 빠졌었잖아.”

“빠지기는! 니 아버지가 하두 답답하고 굶뜨니까...”

엄마는 ‘잠미 스무송이’를 벌써 받기라도 하신 듯 슬쩍 미소지었다.

“엄마~”

“또 왜?”

엄마의 가칠한 손을 잡아보았다.

스무살의 부드러운 느낌과, 스무해의 따스함이 배어있었다.

“그냥...”

엄마의 스무살 추억은 그렇게 다시 창고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는 제각기 다른 모습의 스무살, 처녀적 엄마의 기억이 남게 되었다.

이제 내가 스무살이 되고 다시 스무해가 지나, 내 딸이 스무살이 될 날이 있겠지... 그 날을 위해, 창고 속 엄마의 앨범 열자리를 비워두어야겠다.

스무살, 내 딸의 눈에 나와 엄마의 스무살은 어떻게 비칠는지...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

심사평

수필부문에 응모한 3백 수십명 가운데서 예심을 거쳐서 본심에 올라온 학생 수는 105명이었습니다. 예심의 관문을 통과할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좋은 글이 많았습니다. 문필가로서 대성할 가능성을 점쳐게 하는 글도 상당수 눈에 띄어 마음 든든함을 느꼈다.

그러나 맞춤법, 띄어쓰기 등이 정확하지 않은 글도 가끔 눈에 띄었다. 제한된 시간에 급하게 쓴 탓도 있겠지만, 평소에도 바르게 쓸 수 있는 기

초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고등학생의 글은 고등학생에 어울리는 젊은이다운 글이 바람직하다. 더러는 어른들을 모방한 듯한 느낌을 주는 글도 있고, 더러는 지나치게 멋을 부린 글도 눈에 띄었다.

산문은 그 뜻이 독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어떤 글은 평범함을 넘어서려는 욕심 때문에 그 것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치 않은 것도 있었다.

입상작 6편 가운데서 남주희의

‘상처’와 양은정의 ‘스무살: 엄마의 스무살’ 그리고 임소연의 ‘상처’를 다시 골랐고, 그 가운데서 다시 양은정의 글을 장원으로 뽑았다.

양은정의 ‘엄마의 스무살’은 읽는 사람에게 감동을 준다. 그 가운데는 글쓴이의 가정을 흐르는 사랑의 정이 진솔하게 담겨있고, 글 전체의 전개도 자연스럽다. 특히 어머니의 스무살과 필자 자신의 스무살, 그리고 다시 20년이 지난뒤에 딸이 스무살을 맞는 날을 언급한 솜씨는 알미울 만치 돋보였다. 끝으로 대화가 너무 많은 것은 옥의 티가 아닐까 한다.

김태일·김호성·이종대

수필 우수석

상처



광명여고 3학년 남주희

세상 사람들 모두가 하나 이상의 상처를 안고서 살아간다. 그 상처의 크기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상처라는 이름만으로도 사람들은 고통을 맛보게 된다. 상처입은 순간은 몸시도 끔찍하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상처는 사람에게 단순히 고통만을 안겨 주지는 않는다. 그 상처들로 인하여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한층 더 강인해진다. 나에게도 나를 강인하게 만들어준 상처가 있다. 그것은 ‘가난’이다.

어렸을 때부터 평범한 집안에서 자라난 나는 하루 세끼 밥먹는 것도, 이쁜 옷을 입는 것도 사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는 것 모두를 당연하게 여겨왔다.

“엄마, 돈 뭐!”라고 말하면 언제나 내 손에는 돈이 쥐어졌다. 원하는 것을 거의 모두 할 수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랐다. 나에게 많은 시련과 아픔을 주었던 IMF가 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IMF는 괴물이었다. 갑자기, 너무나도 갑자기 어둠이 찾아왔다. 집안이 무너짐을 느꼈다. 쌀이 줄어들고 겨울에 방바닥이 몹시도 차가웠다. 출고 배고웠다. 당당히 넘기기에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 인자하던 아버지의 얼굴에서 어두운 안개가 드리워졌다. 어머니는 아위어 가셨다. 당황스

러웠다. 누구라도 잡고 물어보고 싶었다. 갑자기 왜 이런 불행을 맞아야 하나고... 처음으로 학교 등록금을 내지 못했다. 선생님 입을 통해 들리던 등록금미납 자명단 속에 내 이름이 불리워졌을 때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충격을 맛보았다. 그 날 하루종일 아무런 생각을 할 수 없었다. 수업을 마치자마자 집으로 뛰어왔다.

“엄마, 등록금 안냈어?”

“.....”

나를 강인하게 만들어준 상처가 있다 그것은 ‘가난’이다

“나 오늘 이름 불렀단 말야!”

온갖 짜증을 내며 엄마에게 소리쳤지만 엄마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다. 아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셨다. 지극 정성을 다해 길러오던 딸의 아픔을 마음으로 느끼셨던 것 같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어머니는 작고 나약해지셨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다. 밤늦게 돌아오신 아버지께 또 다시 소리쳤다.

“왜 돈 안냈어! 내가 오늘 얼마나 참피 했는지 알아?”

아버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산 듯 “내일 내줄게.”하시며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우리 집에 커다란 먹구름이 몰려와 있는 것 같았다. 1주일정도 후에 또 다시 학교에서 이름이 불려졌다. 학교를 뛰쳐 나오고 싶었다. 또 다시 마음을 삼키고 수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계단을 오르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현관문을 부수칠 듯

이 세차게 달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 때 혼났다고 하고 왜 안냈어! 나 이제 학교 안가! 죽고 싶어!”

차디찬 말로 어머니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서툰 솜씨지만 요리도 하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다. 1주일에 한번 꼴로 학교에서 미납자명단이 나왔고 1주일에 한번씩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다. 집 앞 놀이터에 가서 실컷 울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집에 들어와 정소를 했다. 그렇게 소리 없이 조용해진 나를 보시고는 천마디 말보다 따스한 어머니의 손길로 나를 쓰담 쓰담 해주셨다.

같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힘겨움이

어 울었다. 이 방 건너편에 소리없이 흐르고 있을 어머니를 생각하며 더욱 소리내어 울었다. 어서 이 기분 나쁜 먹구름이 지나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또다시 힘겨움에 부딪히고 말았다. 어머니께서 병이 나셨다. 하루가 다르게 야위시고 하루종일 누워만 계셨다. 어머니가 아프신 후부터 집안은 한층 더 삭막해져만 갔다. 아버지의 두 어깨가 땅에 닿을 듯이 작아 보였다. 내가 힘을 내야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저토록 고통스러우신데 나머지 주저앉으면 정말 이대로 끝날 것 같았다. 평소 안해보던 집안일은 몹시도 힘겨웠다. 하지만 차가운 방바닥 위에 누워계시는 어머니의 마음까지 얼어붙게 하고 싶지 않았다. 서툰 솜씨지만 요리도 하고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도 자주 나누었다. 1주일에 한번 꼴로 학교에서 미납자명단이 나왔고 1주일에 한번씩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다. 집 앞 놀이터에 가서 실컷 울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집에 들어와 정소를 했다. 그렇게 소리 없이 조용해진 나를 보시고는 천마디 말보다 따스한 어머니의 손길로 나를 쓰담 쓰담 해주셨다.

같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던 힘겨움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조금씩 예전의 평온함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다. 쌀통 안에 수북히 쌓인 쌀알들을 만져보며 그렇게 행복해졌던 것은 아마 앞으로는 결코 느낄 수 없을 소중한 추억이 되었다. 갑자기 시련이 찾아온 것처럼 빠르게 그 상처가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조금씩 아물어져 가는 상처 속에 더없이 커다란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내 어깨를 감싸시며 말씀하셨다.

“우리딸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산다. 힘들어도 잘 견디어 줘서 고맙다.”

아마 이런 말 역시 투박한 아버지께 다시는 들을 수 없는 값진 선물이 되었다. 수많은 깊은 쓰라린 상처 속에 나는 한층 더 강인해질 수 있었다. 상처가 조금씩 아물어가면서 얻게 되었던 감동과 기쁨은 너무도 소중한 것들이었다. 앞으로도 또다시 수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또한 그 순간은 예전과 다름없이 고통스럽게 나를 짓누를 것이다. 하지만 난 알고 있다. 상처를 통해 더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처가 생겨나고 아무는 것이 반복됨에 따라 나는 더욱 강인해지고 또 다른 이들의 상처까지도 어루만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남기고 싶은 한마디...

△새로운 실력으로 내년에 다시 온다.
- 대영훈
△연수여고-이경희, 김지혜, 유은미
△체발 장원도 안 배려.
가작이라도 주시면... 비참하다~
△계성고 2-5 광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짱~ 들어가고 싶어요!
△소재가 넘 어려워... 죽다 살아났음.
△모르겠다. 주위 사람들은 다 길인데
나의 시만 오로지 짧았다.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다. 다음에는
꼭 해야지...
△최강 안양예고 문창.
△시인은 누구보다 자유로운 사람이다.
지금 난 자유롭고 싶다.
△나는 직선이 되고 싶다. 어떤 직선과도
접하지 않고 동일하지 않으며 평행하지
않은 직선이 되고 싶다. 그런데 소설을
쓰기에는 시간이 짧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나 장원 먹고 싶어~
△친구가 없어서 외롭긴 했지만
재미있었어요.. 결과도 좋았으면...
△내가 떨어진다 해도 3년 후에 다시
오리라. 꼬~옥
△오늘 와서 설혀 언니도 뵈고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만날 수 있음이.
너무나 기쁜 날...
△나예겐 다음이 없다.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고 추억할 수만이라도 있다면...
△문학이란 글로하는 학문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학문이다.
△이제껏 살아있던 정치인들은 멀하고
이제 우리가 정치를 바로 잡는다. 아자!!
△힘들었다. 그래도 동국대 오고파~
△문창과에 꼭 온다!
△누이여 풍자가 아니니 해탈이다.
△동국대 와서 정말 좋았던 건 3년 동안의
연속적인 외출. 상 중 안주냐?
△상품은 작년과 똑같다..
△내년에 다시 봐요! ^^

△동대 문창과 기다려라~
이운학님 기다리세요.
△나 지금 그냥 돌아가지만
동대 꼭 온다!!!
△공부해서 여기 올꺼다.
△잘 하 자!
△내 문학의 길은 긴 고에 끝을 맺고
이제 다른 길을 걸으며 홀로 가야한다.
△상 못됐다. 아쉽다.
△그래도 난 문학인의 길을 간다.
△내가 장원타면 쏜다...
△dead poets society 친정환 時心에
당기름...
△밥도 기념품도 작년하고 똑같다.
아~ 왜그러냐! 그래도 동대가 짱이다!
꼭 온다 동대!
△문학 콩쿠르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구요..
오늘 모인 예비 02학년 꼭 대학갑시다!

△다른 백일장보다 곱하기 백배 더
좋다~
△문학 콩쿠르 왔는데요. 기다리는게
너무 지쳐요. 학교도 산투대기에 있고,
△오늘 새벽에 와서 5시간 기다렸다!
△학교가 정말 크네요.
△동국대 정문을 바라보고 왔더니 역시나
그 여인이 남네요. 언니 오빠들도
이름하나만으로도 사람을 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소설 시간이 너무 짧다.
△인전에서 빅3라 자처하는
우리 학교에서 나왔자 왔다.
△동대 문학 콩쿠르 때문에 음캠을
못간다. 음캠포 아껴워라
△커트라인 낮춰줘... 오고 싶다..
△어떻게 고등학교보다 밥이 맛없냐?
△감 안조타. 젠강. BeraBeraBera
카드제티엠...동대 꼭 온다.

△동국대 축제에 가고 싶었는데...점
△저 좀 뽑아주세요
△내가 장원!
△글쓰면서 행복했어요
△나 고1이다. 무지 졸았다.
△상 안받을까 봐하지만.
△안양예고 문창과 45분 왔다간당.
△다 끝나고 다 망했다. 잘했으면
 좋겠지만..근데 망한거 맞냐?-준혁
△오늘의 낙서는 내일의 벽화
△불온은 동대 기부금 낸다
△정말 힘들었다. 이제 결과만 기다린다.
3위 이내만 들어가라. 파이팅!!
△시간 드르게 안가네!
△나 꼭 다시 온다! 기다려
△기념품이 작년이랑 같아요.
이런 것은 책상 오른쪽에 놓아주세요.
△동국대 오늘 참 온는데 좋당 π.π
나두 들어가구 싶으렐 ~ ~
내 글 뽑아줘요 ~ ~ π.π
△안양예고 짱!! 문창과 2학년 장XX양

왔음
△동대가 왕입니다요~ '나는 한국문학의
태백산맥으로 간다' 진짜 같가다!
△오늘 동국대 참 와보았어요. 학교가
아늑하고 좋은 것 같아요 모두모두
행복하시구요. 다들 승리하실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래요.-복자여고 2학년
△건물이 무지 넓다. 와!
△레크레이션 켈럽다~~
△장원=상취요.
△생각의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은
예감~!
△좋은 경험하고 돌아갑니다-혜진
△고대 안까지 버스 안들어와요?
△저를 워보는 동국대 생각보다는 좋았고
좋은 경험 된 것 같아요.
△나도 동국대 왔다~
음...글도 제대로 못쓰고..
암튼..π.π 그치만 좋은 경험 되었네염..
-복자

달하나 천강에

배낭여행의 멋



서 대양
관광대
관광레저개발학과 교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문물을 직접 찾아가 보는 배낭여행은, 용기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여행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배낭여행이 그 규모가 확대되고 관광의 또 다른 형태로 대중 상품화되면서, 무모한 배낭여행의 문제점도 적잖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꼼꼼한 사전계획이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것을 찾아 떠나는 일은 마냥 설레이는 멋진 일이지만, 그러한 기대는 철저한 준비에 의해서만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목적지의 교통, 숙박, 생활문화 등에 대한 탐구는 최소한 1-2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 하며, 현지에서 가서는 미리 스테디한 내용을 그 환경에서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현지인과의 만남을 통해 나만의 새로운 경험을 창출해야 한다. 당일의 여행 결과를 정리하고, 다음 일정을 위한 내용을 확인하는 등 스스로의 기획에 의해 보물을 캐듯 찾아다니는 배낭여행의 참맛은 오직 떠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다.

새로움에 대한 도전과 체험, 특히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자신감과 어학실력,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헤쳐 가는 능력 등은 어느 교육현장을 통해서도 얻을 수 없는 배낭여행만의 산 교육이다.

병을 앓아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 듯이 여행을 통해서 유한한 인생의 소중함을 알고, 삶의 폭을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여행 속에는 나와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나의 인생이 들어있다. 그 속에서 삶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확인하는 일이어야 할 또 다른 보람이 아니겠는가?

배낭여행이 꼭 외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자신을 알고 상대를 접할 때 모든 것이 더욱 확실해 지듯이, 우선 아름다운 우리 산하의 곳곳을 두루 살핀 후 타국의 문물을 비교해 보고, 한국 젊은이의 기개와 멋을 보여 주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다.

또한 남들이 모두 간다고 해서 준비 없이 떠나서는 일은 시간과 돈과 젊음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떠날 수 있고 찾아갈 곳이 있으며, 그 곳에 아름다운 자연, 정다운 이들과 함께 색다른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일인 일만 소중할 것인가. 청춘들이여! 배낭 가득 담아서 추억과 낭만을 위하여 단단하게 나설 수 있는 나만의 여름을 지금부터 준비하자. 세상은 저지르는 자의 몫이리라.

독립문화 르네상스, 젊은 문화여 깨어나라!

자본부족·제도 미비 등 한계 부딪혀 ... 정부 지원 필요

14세기 후반 이탈리아에서는 기존의 중세적 가치관에 저항하며 고대 그리스·로마 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를테면 르네상스, '재생·부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인간의 창조성이 무시된 암흑기인 중세 '주류' 문화를 타파하는 '비주류' 움직임의 시작이었다. 사상·문학·미술·건축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전개된 르네상스는 고착화되고 타락한 중세 문화를 정화하며 각 분야에 걸쳐 눈부신 문화발전을 꽃피움으로써 시대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우리 사회에도 창조적인 젊은 문화의 르네상스 바람이 불고 있다. 거대 산업자본의 상술과 권력으로 점철된 주류 문화에 대해 비주류를 표방하는 독립예술문화가 그것이다. 독립예술문화는 90년대 이후 우리 사회에서 비종교적 문화담론을 형성하며 꾸준한 자기 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는 제도권과 기성세대의 고착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일탈욕구를 신랄하게 파헤쳤으며, 보고 듣는 수동적인 문화에서 벗어나 대중이 함께 느끼고 즐기는 적극적인 문화 수용방식을 확산시켰다.

그러나 최근 이들은 한계에 부딪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독립적 자기자본과 인프라의 부재라는 내적 환경과, 문화산업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의 미비 등의 외적 환경이 독립문화의 확산과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류 문화의 흥수 속에 빠진 비주류, 독립예술문화에 대한안은 없는 것인가.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달 23일 중앙

대학교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독립예술문화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2001 독립예술지원 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현재 다양한 독립예술문화영역에서 활동중인 패널리스트들이 참여, 독립예술문화의 현황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제도적·정책적 지원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제1발제에서 이동연 문화연대 사무차장은 독립문화를 "독립문화자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문화생산을 만들어가는 소수자본의 문화"로 정의하며 "정부의 지원이 상품가치의 논리에서 벗어나

문화적 다양성 추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의 가치로 환원될 수 없는 감성적, 실험적 가치가 독립문화를 규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며, 독립문화의 잠재력은 문화적 힘과 능력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날 논의된 내용의 핵심 사안에는 문예진흥원의 독립문화기금 운영 방식의 투명성, 지원 확대, 장기적 지원체계 마련 등도 포함되었다. 이와 관련해 대중음악평론가 석기완 씨는 "정부의 지원은 독립문화의 규모에 상관없이 이루어져야 하며, 제도적 지원이 물질과 연계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의 흐름은 언제나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워야 하며, 주류에 대항하는 도전 정신은 계승되어야 한다. 주류와 비주류, 억압과 저항의 갈등 속에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에너지가 생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탈중심, 변두리 문화가 중앙으로 편입되는 과정의 긴장관계에서 발생하는 힘이다. 90년대 초 영화·음악을 중심으로 시작된 독립문화는 어느덧 현재 미술·인터넷방송 등 모든 문화장르에서 대중문화의 일부로 굳게 자리잡았다. 끊임없는 변화와 혁명을 통해 기성문화의 부패와 타락을 경계하고, 문화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독립문화는 한계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제 독립문화의 새로운 르네상스는 정부와 대중, 우리 모두의 손으로 함께 꽃피워야 할 것이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서울국제도서전, 종이책 위기 기 뒤흔어넘기

지난달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사회통계조사 문화·여가부문에 의하면 연간 독서인구 비율이 59.4%, 1인당 1년 평균 독서량은 13.2권으로, 96년 63.5%, 16.1권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1년 간 읽은 책을 종류별로 보면 만화 등 기타서적이 4.7권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교양서적 3.9권, 잡지 2.6권, 직업관련 서적이 1.3권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는 책이 예전의 지식문화 기반에서 흥미위주의 소일거리로 변해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사람들이 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얼마든지 책에서 얻었던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한 예로 '노벨21(www.nobel21.com)'의 경우 고전부터 근대소설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소설과 북한 소설을 무료로 읽을 수 있고, 인터넷 서점 'Yes24(www.yes24.com)'의 경우도 저렴한 가격으로 'e-book'을 다운받을 수 있다. 이처럼 현재 종이책은 대중에게 단순히 외면당하는 차원을 벗어나 존재 위기에 봉착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이런 종이책의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

대한출판문화협회회는 오는 6일까지 코엑스 태평양관에서 '2001 서울국제도서전'을 연다. '책, 내일의 힘입니다'라는 주제 아래 23개국 1천 5백여 출판사가 참가한 이번 도서전은 국내·외 도서 전시의 장, 우리나라 대표 출판물전, 관련 단체별 종합관, 특별기획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진행중이다.

특히 특별기획전의 '책으로 가는 북한' 코너는 1956년부터 2001년까지 북한에서 발간된 대표서적 139종 2천여 권을 전시함으로써 사람들의 발길을 가장 많이 끌고 있다. 이 코너는 6·15 남북 정상 회담 1주년을 맞이해 통일의 염원을 담고, 분단 반세기의 이질화된 언어와 문화를 동질화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돼 북한의 실정을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2001 서울국제도서전'은 여러 각도에서 접근한 시도를 통해 책이 우리 삶 속에 가깝



가장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끈 북한도서 특별기획전.

게 다가오는 자리를 마련하고, 책 자체에도 다채로운 변화를 시도해 사람들의 관심을 모은다. 최근 대두된 종이 문화의 위기 속에서도 이번 전시와 같이 책의 다양한 컨텐츠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지식정보와 문화의 기반 구실을 다해온 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기대해 본다.

문화부
fresh@dongguk.edu

잠은소식

아리랑 정기공연

서울캠 민중노래패 '아리랑'이 정기공연을 가진다. '노래는 힘이고, 삶이요, 희망이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푸른 나 이 청년', '월광 앞에서' 등 친숙한 민중가요를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오는 5일 6시, 학림관 소강당에서. 문의 016-9277-3122(신홍철)

연극학과 실기공연 '착한 여자'

서울캠 연극학과 4학년 학생들이 제작·실기 수업의 일환으로 연극 '착한 여자'를 공연한다. 서사극으로 잘 알려진 브레히트의 '사천의 선인'을 원작으로 한 이 연극은 선과 악을 넘나드는 한 여자의 삶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오는 5일까지, 7시, 90주년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문의 011-335-7662(이중섭)

단풍엔 판국 한마당

서울캠 단과대 풍물패 연합인 '단풍엔'이 신명나는 '판국 한마당'으로 동악을 흥낸다.

단풍엔의 길놀이로 시작되는 이번 공연은 그동안 갖고 닦은 새내기들의 실력을 뽐내고 총 8개 단과대가 각기 특색 있는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특히 단과대별 마당극 등의 개별 공연은 보는 이의 재미를 더해 줄 것이다.

오는 5일 6시, 민해광장에서. 문의 011-9886-7424(이창수)

애오라지 워크샵

경주캠 한의과 대학 극단 '애오라지'가 신입생 워크샵 공연을 무대에 올린다.

이번 공연은 규율에 짜여진 인생을 살았던 사형수와 그를 바라보는 사형 집행관의 이야기를 '웃음'이 넘치는 교수대로 풀어낸다.

오는(4일)부터 5일까지, 2시/ 6시, 원효관 소강당에서. 문의 018-574-3412(이진섭)

소리창고 정기공연

경주캠 음악동아리 '소리창고'가 정기공연을 가진다.

소리창고는 이번 공연을 통해 총 15곡을 선보이며 클래식 기타를 이용한 연주곡 메들리도 선보일 예정이다. 가족이라는 테마로 아카펠라, 혼성 듀엣 등 소리창고만의 화합된 모습을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이다.

오는 8일 6시, 원효관 소강당에서. 문의 054)770-2794

대학생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공모 지원

가. 목 적

대학교 기업, 정부가 연대하여 참신하고 진취적인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을 활성화하고 자기 발전과 아울러 공동체 사회의 시민양성에 기여 함.

나. 공모신청 봉사분야

지역사회봉사와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봉사로서 교육, 환경, 사회복지등의 분야(의료분야는 제외)

다. 사업 기간(지원대상 활동기간) : 2001. 5 - 2002. 2

라. 사업 내용

- 대학생 동아리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활동비 지원
- 지원금 규모 : 심사등급에 따라 등급별로 최고 100만원부터 차등 지원하며, 최하등급은 제외함. 신청액이 심사등급별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는 신청액을 지원함.

마. 신청 절차

- (1) 구비서류 : - 지원신청 동아리 현황 2부(소정 서식)
- 봉사활동 지원 신청서 2부(소정 서식)
- (2) 서식비치 : 참가신청서(본관 3층 학생복지실)
- (3)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에 구비서류 제출
- (4) 신청기간 : 2001. 6. 8(금)까지

바. 심사 기준

프로그램의 참신성, 학생의 특성, 전공 연계성, 사회현실문제 참여도, 문제해결 효과성, 프로그램의 지속성, 활동예산 확보 계획 등.

사. 지원 결정 : 심의회에서 심사후 결정(6. 13)

- 결정통보 : 해당 대학 통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

아. 혜택 : - 프로그램 참여자는 2002년 대학생 해외봉사단 참가 우선 선발

- 우수 봉사 동아리 및 개인표창, 시상

자. 문의 및 안내 : *참사신청서 : Tel: 2260-3049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 Tel: 783-9860

(후원 :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복위 여름 특강

- 1. 어학특강
1) 접수기간 : (정시) 6월 11일(월)~6월 22일(금), (추가) 6월 25일(월)~6월 29일(금)
2) 강의기간 : 6월 25일(월)~8월 24일(금),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여름휴가
3) 공개강의 : 6월 25일(월), 26일(화), 27일(수)
4) 접수장소 : 구내서점(다량관 지하), 단 고득점 보익은 학생복지위원회에서 접수

강의명	강의시간	수강료	강의실
TOFLE	아카데미 TOFLE	9:00~10:20	30,000 L501
	AIKAS강화 TOFLE	11:00~12:20	30,000 L204
	인문사 TOEIC	9:00~10:20	30,000 L204
	ECC TOEIC	12:20~1:40	30,000 L407
TOEIC	테마미디어 TOEIC	11:00~12:20	30,000 L204
	아카데미 TOEIC	11:00~12:20	30,000 L501
	고득점 TOEIC	9:00~10:20, 10:40~12:00	75,000 L407
	네이스 영어스펙	9:00~10:20	30,000 L205
기타	일본어 특강	9:00~10:20, 12:20~1:40	55,000 L310
	중국어 특강	10:40~12:00	55,000 L310
	한자 1800	9:00~10:20	30,000 L301
	한자 2000	10:40~12:00	40,000 L301

- 2. 컴퓨터 특강
1) 접수기간 : (정시) 6월 11일(월)~6월 22일(금), (추가) 6월 25일(월)~6월 29일(금)
2) 강의기간 : 6월 25일(월)~8월 24일(금), 7월 23일부터 7월 27일까지는 여름휴가
3) 환불기간 : 6월 25일(월), 26일(화)
4) 접수장소 : 학생복지위원회(다량관 3층)

교과목	강의시간	강의료	강의실
1교시	9:00-10:00	0A	6.25-8.24 70,000
2교시	10:10-11:10	INTERNET	6.25-8.24 70,000
3교시	11:20-12:20	0A	6.25-8.24 70,000
4교시	12:30-1:30	INTERNET	6.25-8.24 70,000
5교시	1:40-2:40	FLASH(19)	6.25-7.20 50,000
6교시	2:50-3:50	COMPUTER GRAPHIC	6.25-8.24 100,000
7교시	4:00-5:00	COMPUTER GRAPHIC	6.25-8.24 100,000
토·일	3:00-7:00	전자상거래(멀티가점)	6.23-8.19 260,000 L204

- 3. 기타
1) 학교의 본 수업으로 인해 특강 강의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강의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강 될 경우 보강을 실시합니다.
3) 강의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학복위(2260-3681, 2276-1950, 다량관 3층)와 학내 자료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복지위원회

2001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추가 신청

- 1. 대상 : 2001학년도 2학기 3학년 복학자 및 재학생 중 복수전공 희망자 (편입생 포함)
- 2. 선발인원 : 2000학년도 2학기 복수전공 결정 잔여석
-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1. 8. 20(월)~22(수)
- 4. 확정공고 : 2001. 8. 29(수)이전, 각 대학 교과과
- 5. 대상학과 : 계열제한 없이 전학과, 전공(단, 잔여석이 있는 학과, 전공)
- 6.제한사항
1) 한의학과,의약과로의 복수전공 불허
2) 캠퍼스간 교차 복수전공 불허
3) 비사범계열 학생은 교직이수자에 한하여 사범대학내 학과로의 복수전공을 허가함
4) 예·체능계 학과(전공)지원시 해당학과(전공)에서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통과하여야 함
- 7. 원서교부 및 접수처 : 각 대학 교과과
- 8. 선발인원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대학 교과과에 배포된 '복수전공 이수 신청원 작성서 참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 무 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접수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 합니다.

- 1. 대상자 : 2001년 8월 졸업예정자 중 비사범계 교직과정이수자
- 2. 자 격
(1) 학적이 정하는 졸업요건을 갖춘 자
(2) 교육부에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그 명단이 제출된 자
(3) 교직과목 20학점, 전공과목 42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표시과목 관련 기본이수영역별 상용과목을 이수한 자료, 교직과목 및 전체 전공과목의 평균성적이 각각 80점이상인 자
- 3. 접수기간 : 2001. 6. 11(월) ~ 6. 15(금)
- 4. 제출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소정양식)
- 5. 교부 및 접수처 : 사범대 교과과
- 6.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으니 대상자는 유의하기 바람.

사 범 대

낙산학사 개장

- 1. 개장기간: 2001. 7. 1 (일) - 5. 18 (토)
- 2. 접수기간: 2001. 6. 13 (수) - 6. 15 (금)
- 3. 접수처, 시설사용료 및 캠퍼스별 배정 내역

실명 수용인원	20명 (학생실)
사용일	3박4일
사용관리비	1인당 1실 하루 ₩1,500 (예약금: ₩10,000/1실)
캠퍼스별 배 정	서울 경주 8실 2실
접 수 처	학생복지실 ☎ 2260-3047 학생복지실 ☎ 770-2049

구 분	신 청 기 간	구 분	신 청 기 간
1회	7월 1일 - 7월 4일	9회	7월25일 - 7월28일
2회	7월 4일 - 7월 7일	10회	7월28일 - 7월31일
3회	7월 7일 - 7월10일	11회	7월31일 - 8월 3일
4회	7월10일 - 7월13일	12회	8월 3일 - 8월 6일
5회	7월13일 - 7월16일	13회	8월 6일 - 8월 9일
6회	7월16일 - 7월19일	14회	8월 9일 - 8월12일
7회	7월19일 - 7월22일	15회	8월12일 - 8월15일
8회	7월22일 - 7월25일	16회	8월15일 - 8월18일

- 5. 유의사항
가) 본교 재학생(타교생 사용불가) 외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나) 실배정은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별도의 추첨은 없습니다.
다) 시설사용료 및 예약금은 접수시 학생복지실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예약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취사도구는 개인별 지참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학생복지실로 문의 바랍니다.

사 무 처

매체비평

영화 편

진주만

“마이클 베이, 당신! 역사로 장난치면 못세! 천벌받기 십상이야.”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영화 '진주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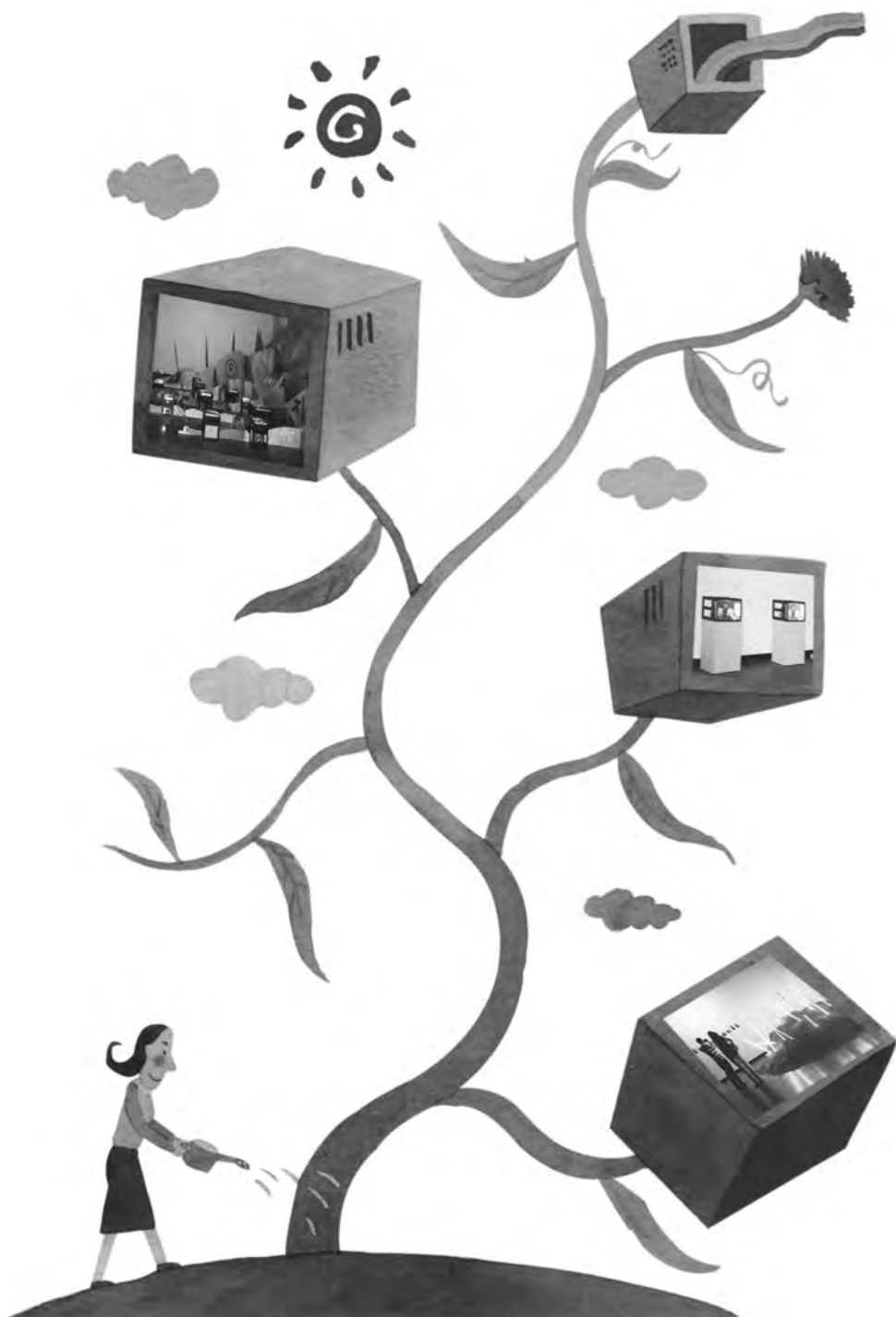
마이클 베이 감독! 나 '대니 워커'와 이야기 좀 합시다. 1941년, 당신은 나를 전쟁과는 동떨어진 곳이라 여겨지던 하와이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와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 무엇을 하길 바랬나요. 하와이의 평온함을, 미군의 안위를 일본군이 깨뜨렸다는 것을 좀 더 과장해서 부각시키기 위해 결말이 뻔히 보이는 나와 '레이프', '에블린'의 삼각관계 로맨스를 이야기하도록 한 것밖에 없는 것 같군요. 나와 돌도 없는 친구인 레이프를 영국군에 자원시켜 그 연인인 에블린과 떨어뜨려 놓더니, 레이프가 전장도중 죽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당신은 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에블린을 사랑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습게도 당신이

우리의 어린 시절까지 들먹여가며 이야기했던 우정이란 결국엔 이것밖에 안된다는 것이군요. 에블린도 그렇죠, 그렇게 쉽게 레이프를 잊을 수 있었을까. 게다가 당신은 어이없게도 나와 에블린의 다정한 한 때를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레이프를 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뻔한 러브스토리를 보여주면서 관객들에게 사랑의 아픔과 달콤함을 느끼라니. 게다가 당신은 내가 죽는 순간에도 인심쓰는 척, 양보를 가장해 에블린을 레이프에게 '부탁' 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는 당신에 의해 그 방향이 결코 옳지 않은 우정을 파시하게 된 거죠. 아마 한국 관객들이 이런 내 모습을 본다면 1980년대 부산의 '준석'이를 소개해 주고 싶을 겁니다. 그 친구도 '친구'라

는 미명 하에 사랑을 주고받는 것을 쉽게 생각했죠. 아마 당신과 만나면 '진숙'이를 양보할 지도 모르겠군요. 진주만에 일본군의 기습공격이 있었을 때는 또 어땠나요. 폭격의 막바지였다고는 하지만 나와 레이프, 그리고 몇몇 군인들이 일본군을 물리친 것처럼 묘사한 것은 억지스럽기까지 하죠. 내가 영화 속 인물에게 말정이지, 전쟁은 장난이 아니라 는 걸 잊지 말라고 충고하고 싶군요. 아, 그리고 보니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혹시, 당신 예전에 패러디영화 만들던 감독입니까? 일본군 전투기가 한가롭게 뛰노는 아이돌 머리위로 지나가는 장면은 '태양의 제국'을, 전함의 침몰하는 장면은 '타이타닉'을, 소형 비행장에서 전투기의 기습공격을 피하던 모습은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그것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당신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말이죠. 이제 당신에게 하고 싶은 말은 거의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죠. 영화는 당신과 당신의 영화 제작사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대는 '단일 스튜디오 역사상 최고 제작비'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과 영화를 볼 관객을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제작요소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물론 영화에서 상업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역사적 사실에 과장된 허구를 끼워 파는 짓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 천벌받기 십상이니까요. 표은영 문화부장 psik20@dongguk.edu

대안공간, 비주류의 길에서 당당해 진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

뜻하는 바를 이루려면 반드시 그에 마땅한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을 뜻하는 우리 속담이다. 그러나 우리는 뜻하는 것만 제시할 뿐 그에 앞서 해야 할 일은 무하는 경우가 많다.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만 정작 앞장서서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 모인 이들은 잘못된 것을 앞장서서 개선해 나가고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애쓰고 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풀', '인 더 루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투비아 다방' 등으로 대표되는 '대안공간'에서 이러한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우리 나라에서 '대안'을 표방하는 것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우리가 잘 아는 '딴지일보'는 대안언론의 성격으로, '독립영화제'는 주류영화에 대한 대안영화제의 성격 등으로 각기 그 역할을 해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대안공간에 주목하는 것은 순수예술, 그 중에서도 특히 미술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장소라는 점이다.

주류를 거부하는 자율적 창의력

대안공간이라는 이름의 미술공간은 처음 미국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1960년대 말, 모더니즘적 권위에 문제 제기하고 도전하는 하나의 문화운동으로 전개되었으며, 사회전반에 걸쳐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관해 동덕여대 양지연 교수는 "대안 문화는 주류 밖에서 주류를 거부함과 동시에, 주류화 혹은 제도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게릴라식의 틈새 역할을 담당했다"며 "미술에 있어서 대안공간은 비주류 예술활동에 주목하는 비영리 전시공간의 총칭"이며, "미술관과 상업화와의 엄격하고 제한적인 구조에 대한 반동으로서 형성된 작가들의 미술운동과도

같다"고 말한다.

즉, 대안공간이 예술로서의 미술이 상업성에 얽매이지 않고 그 창의성을 맘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율적인 공간으로써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안공간은 현재 미국에서는 물론이고, 우리 나라에서도 서서히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다.

한계를 뛰어넘어 우뚝서라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서 대안공간이라 말할 수 있는 곳은 전국적으로 10여 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그것도 주로 서울이나 지방 대도시에서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안공간이 주류에서 벗어나는 '대안'을 표방하면서도 주류들이 모여있는 대도시에서 자리잡고 있는 모순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게다가 일반대중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는 대안공간이 아니라 아직까지 전문적 미술가에게만 열려있는 공간으로 작용하는 한계도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지자체의 운영방식이나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성공하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공간 마련에 앞서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분명 이러한 문제는 각 대안공간이 시간을 두고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우리의 대안공간이 생겨난 것은 불과 2~3년에 지나지 않는다. 때문에 아직 미흡한 부분도 많고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이 문제를 인식했을 때 단지 바라보거나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발 벗고 나섰다. 그렇기에 이들이 앞으로 펼쳐갈 행보에 기대를 걸 수 있는 것이다. 첫 술부터 배부를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처럼 처음의 그 마음으로 조금씩 바꾸고 하나하나 채워간다면 우리 대안공간의 미래는 분명 밝을 것이다.

문화부 fresh@dongguk.edu

열린 공간, '가능성'으로 채워라

오 헨리의 '마지막 잎새'는 워싱턴의 가난한 화가 지팡 생들이 모여 사는 골목을 배경으로 한다. 실제로 1960년대 말 미국 뉴욕에서는 이러한 가난한 화가 지팡생들의 비주류적이고 실험적인 미술 전시를 위한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바로 대안공간이 그것이다. 국내에서는 '인 더 루프', '프로젝트 스페이스 사투비아 다방', '대안공간 풀', '쌈지 스페이스' 등이 이에 속한다. 이중 '인 더 루프'와 '쌈지 스페이스'의 대안 공간적 성격에 대해 알아본다.

인 더 루프

국내 최초의 대안공간인 '인 더 루프'는 이전까지 생소했던 대안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수 있게 한 장본인이다. 기존의 유명 작가들에게만 열려있던 미술관이나 갤러리와는 달리 젊은 신예작가들에게 비상업적이고 실험적 공간을 제공했던 루프의 시도는 미술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구석진 골목 지하에 위치해 있어 인적이 잘 닿지 않는다는 점과 모든 기획을 소화하기에 다소 비좁은 전시 공간은 루프의 이용 대상을 소수 매니아층에 그치게 하는 단점을 가지게 한다. 특히 정부와 관련 단체의 지원 없이 순전히 개인들이 재원을 충당해 운영하는 열악한 경제사정은 이를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 또한 다른 대안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젊은 작가를 유치하려던 처음의 계획은 기획 대상의 제한으로 특정 연령층만을 지원하는 닫힌 구조를 양산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대상의 연령 폭을 4대까지 넓히기로 한 것과 다양한 재원조달 방식을 강구하고 있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유연한 운영 방식은 열악한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안공간이 그 위치를 공고히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쌈지 스페이스

각종 미술회원과 갤러리가 즐비한 홍익대학교 근처를 지나 보면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쌈지 스페이스'를 만나게 된다. 모기업 쌈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쌈지 스페이스는 작년 이맘때쯤 개관해 총 9번의 전시 기획전을 열었고 각종 이벤트 및 콘서트를 하고 있다.

북한문화공간임을 표방하는 쌈지 스페이스는 1층의 '차고', 갤러리와 공연·휴식공간인 이벤트 클럽 '소리', 2·3층의 전시장과 언더 그라운드 록밴드의 공연장으로 이용되는 미디어 시어터 '바람'이 자리하고 있다. 또한 4~6층은 작가들을 위한 작업장으로, 7층은 사무실로 운영 중이다. 이렇게 7층에 이르는 건물 규모는 국내 대안공간으로서 상당히 큰 규모에 속한다.

매년마다 새로운 작가들의 입주를 받아 신인작가 발굴에 힘쓰는 쌈지 스페이스는 해당 작가의 작업이 끝나면 작업 공간에서 바로 전시를 하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사기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다소 특색 있는 재정여건을 가진 쌈지 스페이스는 순수미술분야의 젊은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한 작가들의 작업이 끝나면 쌈지에 자신의 작품을 한 점씩 기증해야 한다는 점은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작가를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손승민 기자 neos292@dongguk.edu

인터뷰 - 대안공간 '풀' 기획자 황세준 실장을 만나

“젊은 작가 발굴 통한 담론 형성에 주력”



평일 오후인데도 인사동 '주류'는 많은 인파로 북적거렸다. 그러나 인사동 사잇길, 대

안공간 '풀'이 위치한 곳은 인적이 뜸한 '비주류'였다. 그 곳에서 비주류 작가 발굴에 힘쓰고 영향력 있는 담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풀'의 기획자 황세준 실장을 만나 대안공간 '풀'의 기획동기와 지향점, 당면과제에 관해 이야기해 보았다.

- 대안공간 '풀'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 우리 미술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연대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다. 우리 미술에는 각 대학의 미술학과나 관련 교육 등을 통해 주류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이를 채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부족하다. 때문에 '풀'이 대안적 담론을 형성하기에 앞서 생각이 깨어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해 우리

미술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함께 주된 담론을 형성해 가자는 것이다. 그래서 '풀'은 전시뿐만 아니라 이카데미나 심포지엄 포럼 등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 미술의 상징적 공간인 인사동에 자리한 것이다.

- 타 대안공간도 그렇지만 '풀' 역시 비영리적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다. = 재정적인 어려움은 풀의 기획단계부터 있었던 일이다. 지금은 국가지원과 후원회비, 기증받은 작품의 판매 등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소액이지만 대관료도 받고 있는데, 운영이 어려워 대관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각 대안공간마다 조금씩 그 지향점이 다른데 '사투비아 다방'은 신인작가 발굴을, '루프'는 신세대 문화와 미술의 접목을, '풀'은 담론 형성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원충당 방식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다.

- 대안공간 미술계 편중현상과 대안작가의 부재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 타 예술분야의 경우 '대안' 모색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대안적 모임들이 지금은 주류로 편입되어 버렸거나, 언론 쪽에서 대안공간을 이야기할 때 미술계를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인 것 같다. 대안작가 부재의 경우, '작가' 되는 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안작가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선배들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안공간이 대안 활동을 할 수 있는 작가발굴에 힘쓰는 것도 이런 까닭이다.

- 앞으로 우리 대안공간들이 지향해 나아가 할 방향은 무엇인가. = 각 지방의 젊은 작가들의 공간이나 모임, 매체를 활성화시키고 대도시와 지방도시 간의 교류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이와 동시에 대중들이 미술 전반에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준다면 이러한 노력의 성과가 더욱 클 것으로 생각된다.

표은영 기자 psik20@dongguk.edu

메아리

'한' 여성부

▲지난 1월 성황리에 여성부가 출범했다. 각 언론과 방송에서도 여성부 출범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더욱이 한명숙 장관은 취임식 자리에서 남녀평등과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일할 것이며 각계 각층의 여성들을 만나 이해 관계를 돕겠다는 발언을 해 많은 여성들의 관심을 끌었다. ▲여성공무원의 승진 기회가 확대되고 육아휴직 기간이 100% 경력으로 인정된다

는, 남녀평등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내용의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방향' 안건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국·과장 직위가 20개 이상인 부처 중 여성관리자가 없는 부처는 내년 말까지 여성을 1명 이상 보직발령을 내도록 할 것과 현재 육아휴직 기간의 50%만을 호봉으로 인정하는 것을 100%로 확대하고, 직장보육시설 확충 및 출산휴가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여성부 출

범 3개월만의 쾌거라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대규모 인원 감축작업을 벌이면서 여성사원을 대상으로 퇴직을 강요한 사례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자로 지목된 여성사원 모두가 1년 이내 출산자로 단체 협약에서 허용된 수유시간을 사용한 것을 문제삼아 퇴직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에서는 여성공무원의 평등을 위한 정책을 입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의 공기업은 여성사원들에 대한 불평등을 조정하고 있는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우리 사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업에서는 아직도 여성들이 단지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기업에서도 여성사원에 대한 불평등이 만연한 것이 현실인데 과연 어떤 사기업의 사장이 자신의 이익과 여성사원의 근로복지와 맞바꾸려 할

것인가. 여성부는 발등에 떨어진 불만을 끄려 노력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여성 불평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처음 한 장관이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소외받는 모든 여성들을 대변하고 아무를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박헌호 편집부장 blue@mail.dongguk.ac.kr

소나기

6.15 남북 공동선언... 그리고 1년 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세 개

1. 부시 Jr. (아버지 잘 만난 사람!)
 2. 김정일 밑에 있는 일부 주전파들. 요즘 애들은 너무 간과하고 있다. 정신차려 한총련! 이용당하지 말라고!
 3. 그거 이용해 먹는 조선 세력. (부쉬! 내가 온 뒤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 가! 가란 말야~)
- △많이 있다. 니가 모를 뿐이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담방 기다려줘야.
얼굴 한 번 보고 싶어요~
△조선 니들은 언제 정신 차릴래.
△6·25, 10일전 아닌가?
△6·15 남북선언이 모냐?? 잊은 지 오래다.
△공동선언 이후 8개월은 이전의 50년보다 값진 세월이었다. 2차 남북정상회담 반드시 성사시켜 조국 통일 완수하자!
△당연히 지켜야 하는 공동선언이 정치적 희생물이 되다니. 세상 참.
△통일이 되면 우리한테 좋은 게 뭐지??
△DJ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통일갖고 장난하냐?
△국방비 감소만으로도 충분히 좋지.
△통일이 니꺼야?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김정일 담방은 언제인가?
△통일 : V군단 경례후. 통일야, 어딴?
△통일은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
△후! 통일은 내가 한다.
△통일야, 귀가하거라!!
△나는 통일된 조선의 청년이다.
생명도 필요한 청년이다!
△6·15 합의 이행 투쟁!!
△김정일 담방 한다는 소식 없어서 DJ 완전히 새웠음~
△어는 민중을 "DJ이거라도 약속지켜라. 우리 마이 속았다 아이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더니... 소문난 선언도 실속이 없구나.
△1년이나 지났는데 제대로 기억이나 하고 있을까?
△담방 기다리다 세월 흘러가는 줄 모르겠군.
△그 누가 남북이 하나됨을 막을 것인가!
△작심 3일, 선언도 3일(?)
△선언할 땐 국민들 흥분시켜 놓고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건가요?

학생위한 복지, 불편사항 개선되어야

뒤늦게 대학이라는 준 사회에 들어와 혹여 남들에게 소외 받지 않을까, 내 스스로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졌다. 하지만 동아리에 가입하고 중간고사 준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접할 수 있었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많은 추억도 만들었다.

비록 긴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지는 않았지만, 본교 경주캠퍼스의 장점을 조금씩 알아갔고 타교와는 다른 만족감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본교의 모든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구내 식당과 도서관 복지시설을 이용하며 알게 되었다. 진흥관 식당의 경우 공간이 협소해

사람들이 가장 붐비는 점심시간에는 정작 식사하는 시간보다 식사를 하기 위해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된다.

그리고 학생회관 식당의 경우 식기의 위생상태가 청결하지 못하고 음식의 질적인 문제가 심각해 개선이 필요하다.

더욱이 도서관 정보검색실에 비치된 프린트기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해 급히 필요로 하는 문건이나 레포트 등을 인쇄해야 할 경우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은 나쁜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생활하며 겪는 불편한 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정현규 (상경대1)

지방학생 위한 기숙사 건립 시급

나는 고속버스를 타고 부모님과 함께 올라오던 그 늦겨울 새벽을 기억하고 있다. 환눈이 쌓여있던 서울은 맑기도 추웠다.

19살의 나는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고 한겨울 회랑에 부풀어 있었지만 고3때까지 마산에서만 살았던 탓에 어머니는 내가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하셨다.

그래서 어머니는 내게 기숙사 생활을 권유하셨다. 기숙사에서는 타지에서 온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고 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던 것이다.

하지만 그 기대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기숙사가 없다는 학교 관계자의 말을 들

고 난 후 우리는 계획에도 없던 하숙방을 알아보아야 했다. 체감기온이 영하 심도라고 한참 떠돌던 그 겨울, 칼바람을 맞으며 50이 넘으신 어머니와 함께 지리도 몰랐던 서울을 헤맬 수밖에 없었다. 바람 때문에 손이 아리다며 자주 주무르시던 어머니의 모습, 이미 1년을 넘어버린 날의 기억인데도 그 겨울의 모습이 내 기억의 한 귀퉁이로 흑백영화 영상처럼 스쳐 지나가고 있음은 왜일까?

나에게 전화 한 통이 왔다. 50만원을 내 통장에 부쳤다는 어머니의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오늘따라 가슴이 아리다.

김지선 (문과대 문예창작2)

호국 선열들의 깊은 뜻을 되새기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겨레를 위해 몸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구국희생정신을 경건히 추모하는 기간이다.

또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보은, 존경의 뜻을 표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정부는 매년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선정하고 국난극복의 역사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일제 침략과 6·25 같은 민족수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국가보훈처에서는 2001년을 '보훈 문화 확산의 해'로 정해 학술 논문공모와 현충일 추념식을 비롯한 각종 기념행사와 학술강연회, 글짓기, 옹변대회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고 있다.

특히 남북화해 협력시대의 바람직한 보훈 정책 개발 분야와 호국 보훈의식 선양 노력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그 어느 해 보다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민족수난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유사 이래 우리민족은 많은 외세의 침략

을 받아 왔지만 6·25와 같은 처참한 역사는 찾아볼 수 없다. 6월 한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선정하고 현충일을 제정해 갖가지 기념행사를 갖는 것도 이 기간동안 민족이 걸어온 수난의 역사를 돌아보고 다시는 전쟁의 수난 없이 나라를 굳건히 지키고 가꾸어 민족번영을 다져나가는 뜻에서이다.

아직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용사와 전쟁의 불행한 유산을 안고 살아가는 전쟁 유가족들의 실상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번 호국 보훈의 달은 우리 모두가 웃음을 여미는 엄숙한 마음으로 호국선열들의 높은 뜻을 받들어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생각하고 보훈 가족들에게 참다운 보은의 정성을 보내는 뜻깊은 달이 되기를 바란다.

김삼용 (사회과학대학원 25기 원생)

지성인다운 강의참여

날씨가 서서히 더워지면서 학생들의 수업 태도가 학기초와 상당히 달라졌다. 수업을 듣기 위해 강의실에 들어서면 이미 책상에 앉드려 잠을 청하고 있는 학생들이 태반이다.

그리고 이들의 자세는 수업이 시작돼 교수가 들어와도 변함이 없으며 수업 도중 일부 교수가 지적을 해도 마번 그 때 뿐 아무 소용이 없다.

한편 일부 강의는 이와는 대조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한다. 교수의 출석 부르는 시기에 따라 강의실 내외를 분주하게 움직이는 학생들이 있다. 강의 초반 출석을 부를 경우 출석 체크만 하고 빠져 나가는 학생들에 의해 수강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는가 하면 강의 종반부 출석 확인이 이뤄질 경우 학생들이 몰려드는 헤프닝을 연출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학기말이 되면 항상 되풀이되는 것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 대학생의 기초 학력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는 세대 속에서 본교 학생들이 그 중심에 서 있는 것 같아 아쉬울 따름이다.

손세인 (인문대 일문2)

주변인에게 관심을

5월은 길에서 시원한 여름옷을 볼 수 있고, 만물이 바뀌며 의미를 담은 날이 많은 '사람의 달'인 것 같다.

특히 대학생들에게는 연애의 계절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여자친구와 함께 오랜만에 멜로 장르의 영화를 보기로 했다. 제목은 '파이란', 단순한 사랑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내용은 슬픔 그 자체였다. 가슴 속에서 우러나온 진한 미안함이 있었다. 사랑영화가 아닌 '사람 영화'였다. 밀라파 인생인 삼부작과 불범위장결혼 중국어성인 장백지의 커다란 측은 들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직면한 절박함을 기대고 싶은 한 인간의 외로움이 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가 왜 위장결혼을 해야 했을까?"라는 점이다. 엉뚱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지난달 31일 외국인 근로자의 날을 생각하면 알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비롯해 파이란의 최민식 같은 사람까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절박한 인생들이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 우리가 항상 그들을 돌아보고 살수는 없지만 가끔은 소외 받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박준석 (사과대 정외3)

찬반논쟁 효과적 제시

지난호 학술면에 실린 생명윤리법에 관한 찬반논쟁을 흥미 있게 읽었다.

생명의 존엄성이 중요시되는 요즘, 생명윤리법은 안락사의 찬반 논쟁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본다. 그리고 아직 안락사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생명윤리법이 제기 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생명공학 기술이 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명공학은 하나의 세포덩어리라 할 수 있는 배아의 줄기세포를 통해 인간의 장기를 생산해 낼 수 있다. 이것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한 가닥 희망과도 같다.

이번 생명윤리법이 인간의 존엄과 윤리를 우선으로 생각해 개정됐다면 난치병환자도 그 치유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인간으로서 우선시 돼야 하지 않을까?

박해자 (인문대 서양화3)



(제1321호 6월 4일자)

감정개입 치우친 기사

지난호는 여러 가지 학교 정보와 소식을 잘 전달하고 있어 교내신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그러나 학교내의 소식에만 너무 치우친다는 느낌이 들어 아쉬웠다. 교내 소식 뿐 아니라 사회 곳곳의 소식들도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조선일보에 대한 신문사의 감정이 많이 개입됐다는 인상을 받았다. 기여 입학제에 관한 사실에서 언론의 연세대 지지 현상을 말하며 조선일보보라는 특정한 언론사를 언급한 것은 조선일보 반대운동에 참여한 대학생으로서의 감정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 아쉬웠다.

한이름 (사과대1)

기여입학제 '대학 서열화 붕괴' 가능성 발견

연세대의 '20억원 기여입학' 소식으로 대학가가 뜨겁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개를 내밀었던 사안이지만, 쉬쉬하고 있다가 험있는(?) 연세대가 기여입학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니 그럴 만도 하다.

기여입학제를 둘러싼 찬·반 논쟁은 크게 '평등의 원리에 위배됨'과 '경쟁력 확보'로 요약되는데, 여기에서까지 그런 진부한 얘기를 늘어놓긴 싫다. 솔직히 대학의 서열화를 조정하고, 없는 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져 사회 불평등 구조를 더욱 더 심화시키는 따위의 이야기에 대해 다른 신선한 발상이 떠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기여입학제 논란이 피리를 감출 만큼 참신한 반대 이유가 없을'까 하며 창 밖으로 보이는 초여름의 풍경에 취해 있다 가 문득 '기여입학제를 시행하면 어찌하면 대학 서열화가 붕괴될지도 모르겠다'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대학 4학년이나 되는 내 머리에서 나온 그 엉뚱한 생각을 짧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고교 엘리트만이 진학 할 수 있는 일류대. 그만큼 어렵게 공부해서 간 대학이니 사회·경제적 보상차원에서 인정해

주었다 치자. 그런데 성적이 안되더라도 돈만 있으면 일류대에 갈 수 있다고? 췌, 그럼 그 대학도 별 볼일 없군. 돈 몇 푼(?) 있으면 다 가는 대학인데 누가 인정해 주겠어? 나보다 실력도 없는 녀석들이 학교 간판 믿고 어깨에 힘주며 다니다 거저지? 어? 이런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면, 그 대학의 심의도도 떨어질 수 있겠고, 여차하면 '대학 서열화'도 무너질 수 있겠는데... 그래, 너네 꼭 기여입학제 실시해라! 그것도 대폭적으로...'

이러한 엉뚱한 상상이 들고난 후 기여입학제 찬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보기로 했다. 평소 자본의 논리에 잠식당한, 무너진 한국대학의 상아탑을 보며 쓸쓸해하던 내게 '대학 서열화 붕괴' 가능성은 커다란 기쁨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다만 한가지, 저비와 평등으로 뿔뿔 뿔뿔 불교정신을 건학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 동국대학교만큼은 다른 학교가 시행한다고 해서 좇대 없이 '건학이념'에 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김용환 (사과대 신방4)

서울 ☎ : 22603491·2
FAX : 22791270
경주 ☎ : (054)7702058
FAX : (054)7702057

문의·제보 : dgupress@dongguk.edu
하이텔 ID : dgpress
나우누리 ID : 동대신문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동약광장

목격글

추천합니다

- △이정호(01학번) 5월 25일 생일 축하. -진우, 수희, 정민
- △6월13일 윤진야 생일 축하한다.
- △수교과 6월에 생일 맞는 영순이, 성희 생일 축하해요.
- △오정일(광고3)!! 대학연합광고동아리 ONAD의 새로운 회장 된거 축하해요.
- △은하 언니랑, 양규 오빠 (5.31) 생일 축하해요.
- △재수야! 25th 생일을 축하한다. -부야장
- △98 경영 정은, 미정 늦었지만 생일 축하한다. -미란
- △불쾌 야총 뺑현숙 언니 생일 축하해요! -아츨 시구들
- △강철 경영학과 백상기 우우 축하합니다. -강철 경영학과 학생회장
- △6월 19일 건축전공 98학번 헤라니 생일을 축하합니다. -D대 7P

△6월 18일 박철영! 생일 축하해.

열심히합니다

- △최강 광고 종족 AD. RUSH 기말고사 준비 잘합니다!
- △SEM 지현아, 공부 열심히 해라. 고시반 불도록 말이지.
- △숙아, 남은 학기 열심히 해서 F만은 면하자!! -명이
- △쉽없이 공연 준비하는 마담! 우리 모두 힘냅시다! -마담인
- △단풍엔 관국한마당 대상은 '이관사관'이야! 모두들 수고했고 잘 합니다.
- △탈 탈 벗겨, 아주 좋은 공연이었어요. 속 단장. -문학회
- △경영학과 주·야간 전공설명회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영 97철호
- △9기 한총련 출범식 준비하고 다녀오신 민족동국 학우들 수고했어요. -은
- △현중이 형~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래요.

은방글

추천합니다

- △고고미술사학과 학회장님, 시립교지 편 집실 취재부장님! 생일 축하!
- △공택이 누나
- △현규야~ 생일 된 거, 백일 된 거 축하해!
- △6월5일 하나뿐인 반쪽 주연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동훈
- △정훈이랑 현미랑 연인된 거 축하해 주세요.
- △경훈이랑 정은이 누나의 커를 탄생 축하~!
- △열심히합니다
- △강호야, 도윤아, 승훈이형, 영철호 우리 열심히 하자. -훈
- △하랭, 뽕, 수진 열심히 하고, 뽕이랑 수진이는 교생 실습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세요~ -은
- △야성! 야총 체육대회 우승합니다. 자운

수고하셨습니다

- △동훈&진열오빠~ 리포트 하느라 넘 수고 많았어요. -경이&미옥
- △국사학과 모든 선배님들 축제 기간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 국사학과 미인 남
- △HAM 15·16기 축제 때 주막 하느라 수고했어!! -이쁜 누나들이
- △'고미사' 축제 기간동안 주막 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 △영문과 주막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특히 델 선배님, 후배님. -왕인
- △5월25일 임석가요제 정말 수고했다. 파이팅! DKBS.
- △불교 학생회 36대 임원단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 △선민, 진우형 수고하셨습니다. 통일의 결립돌
- 그리고...
- △우영이 오빠! 2학기 과제 꼭 하셔야 돼요!! -한이에 1학년 경이가
- △총여학생 회장님, 항상 밝고 건강할 모습 잃지 말기를... -룸메이트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열무된장국(1300) 어묵이채뭇밥(1600)
화	쇠고기볶음밥(1700) 스테이크볶음(2000)
수	수제비국(1300) 참치어묵비빔밥(1500)
목	햄이채볶음밥(1600) 낙지볶음뭇밥(1800)
금	복어채국(1300)
토	미트볼뭇밥(1600) 쫄면(1300)
일	근대국(1300) 돈가스(1500)
	김치볶음뭇밥(1600) 닭갈비볶음밥(1700)
	제육두부찌개(1300) 양송이볶음밥(1600)
	짜장뭇밥(1700) 집뭇밥(2000)
	배추국(1300)
	삼색볶음밥(1600) 비빔국수(1000)
	된장찌개(1300)
	김치볶음밥(1600) 비빔국수(1000)

(단위:원)

알립니다

'법정대 3on3 대회' 행정학과 농구 동아리 Out-Side에서 개최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행정화회실이나 011-9355-6406 으로 하주세요.